

비트겐슈타인의 <대상>과 헤르쯔의 <질점>*

박 흥 렬

목	차
1. 「논리철학논고」의 자연과학적 해석	(3) 일상적 경험의 언어와 자연과학적 경험의 언어
2. 존재론: 에피쿠로스의 원자, 헤르쯔의 질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4) 대상의 측정
(1)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5) 대상의 형식
(2) 헤르쯔의 원자론	3. 자연과학의 존재론
가. 제1권: 질점과 원자	(1) 대상과 배열
나. 제2권: 측정과 체계	(2) 우리가 다가서면 대상은 물러선다
	(3) 사물존재론과 사실존재론
	· 참고문헌

1. 「논리철학논고」의 자연과학적 해석

비트겐슈타인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철학저작들이 무척이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한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는 것 역시 종종 지적되곤 했다. 그의 저작 중에서도 특히 「논리철학논고」에 관해서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심지어 러셀, 무어, 프레게와 같은 그의 스승이자 당대의 으뜸가는 철학자들도 그의 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 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서 불민과 야니크는 「논리철학논고」를 '독자가 여러 상이한 해석들 중 어떤 것이든 끌어낼 수 있는 수수께끼'(비엔나, 13) 같은 저작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그의 사상에 대한 논문과 저서들은 해석과 평가의 다양함을 넘어서 가히 무정부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김여수, 7) 아닐 것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논란되어온 것이 바로 「논고」에 나타난 단순대상 개념이다. 단순대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 「논고」에 대한 해석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기도 했던 바, 그 예를 간추리자면 이러하다: (1)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1991년 2월)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 이론의 자연과학적 해석 그리고 후기 사상으로의 전환을 다룬 부분이 빠졌다. 이에 반해 필자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을 보여 주는 그리핀(1964)의 생각은 추가되었다.

1) 「비트겐슈타인의 이해를 위한 소묘」, 김여수,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분석철학회 펴냄, 서광사, 1983, 8쪽.

경험론적 전통에서 단순대상을 해석하려는 입장. 이런 생각은 「논고」가 출판된 당시에 이미 나타났던 바, 러셀과 비엔나 서클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요소명제들을 러셀의 원자명제들 혹은 카르납의 프로토콜 명제들로 보는 해석인 바, 이런 해석은 '이 빨강 지름' 등등의 명제들을 요소명제로 간주하며, 분석을 경험의 단위들로의 분석으로 여긴다.' 특히 이들의 해석은 「논고」를 '어떤 철학적 전통'(이상 그리핀, 4), 즉 경험론적 전통에 위치지운다. 이들에 의하면 「논고」는 '감각자료 철학의 한 판형이거나 혹은 유의미성의 검증기준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진 저작'이다. (2) 「논고」에 의하면 단순대상은 실체인 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나오는 제1실체와 매우 흡사'하다고 해석하는 경우. J. O. 엄슨이 「철학적 분석」(엄슨, 71-73)에서 택한 입장이다. (3) 단순대상에는 특수자 뿐만아니라 속성, 관계등 보편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 스테니우스(특히 그의 Wittgenstein's 'Tractatus' 제5장 1절)의 경우. (4) 이에 반대해 단지 특수자들만 단순대상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코피, 앤스콤, 셸라즈, 키트, 피처 (참고 문헌 목록 참조)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단순대상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트겐슈타인이 단순대상의 예를 들지 않았다는 데에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정을 그의 불친절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데, 맬컴의 회고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이 '순전히 경험적인 문제로, 논리학자로서의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맬컴, 86). 그러나 과연 「논고」의 대상은 그렇게도 다양하게 해석될 정도로 애매한 개념인가? 비트겐슈타인은 과연 이 용어를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용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에는 매우 석연찮은 점이 있는데, 그건 특히 그가 「논고」를 출판하기 전후 써두었던 글들에서 이와 관련된 문장들을 발견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논고」를 출판하기 전에 써두었던 초안, *Prototractatus* 2.0141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사물은 무한한 공간으로 둘러싸인 질점이라. 무한한 공간이 없는 질점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Das Ding sei der materielle Punkt mit dem unendlichen Raum um sich. Es ist klar, daß der materielle Punkt ohne den unendlichen Raum nicht denkbar ist).'³⁾ 여기서 사물, 즉 단순대상은 물리학에서의 질점과 동일시된다. '질점'이란 용어는 또한 *Prototractatus* 이전에 기록해 두었던 노트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두 좌표 ap와 bp를 질점 p가 그 장소(ab)에 있다고 발언하는, 한 명제로 간주할 수 있다'(NB, 20). '물체의 질점들로의 분해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걸 갖는 바처럼 다름아닌 <단순한 구성분들로의> 분해이다'(NB, 67), '...<실제로> 물리학에서의 질점들처럼 단순대상이 있는 것 같다'⁴⁾ (NB, 69) 등등. 심지어 그의 후기 작품인 PI에서도 이런 단서는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이전 생각을 비판하면서 그런 예의 하나로 이렇게 말한다. '의자의 단순한 구

2) E.D. Klemke, "The Ontology of Wittgenstein's Tractatus", in *Essays on Wittgenstein*, Univ. of Illinois Press, 1971, 104쪽.

3) 위의 *Prototractatus* 2.0141은 「논고」 2.0131로 바뀌었다('공간적 대상은 무한한 공간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질점'이란 말이 빠져 버렸다.

4) 질점이 단순대상의 예인 것은 아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질점은 비트겐슈타인의 대상에 대한 헤르쯔의 대응물이다. 이들은 둘다 그 예를 들지 않았다.

성분은? - 그것이 그로부터 짜맞춰진 나무조각인가? 혹은 분자인가, 혹은 원자인가?(PI, §47).

비트겐슈타인이 단순대상을 이렇게 물리학의 질점, 화학의 원자 등과 짝지웠다는 것은 우리가 「논고」를 좀 더 자연과학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실 「논고」 자체가 이미 이를 매우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논고」의 그림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명제들은 일차적으로는 자연과학적 명제들이다. 어떤 명제들, 그 중에서도 ‘참된 명제들의 총체는 쏘자연과학(또는 자연과학들의 총체)이다’(「논고」, 4.11). 「논고」 6.53은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철학의 올바른 방법은 본래 다음과 같은 것이리라: 말해질 수 있는 것, 즉 자연과학의 명제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 않지.’ 그러니 우리는 명제 및 명제의 구성분인 이름의 예를 일단 자연과학에서부터 찾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와 상응하는 사실Tatsache 및 단순대상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논고」를 전후한 비트겐슈타인의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증거들로부터 「논고」를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드물게나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리핀의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1964)과 툴민, 야니크 공저의 *Wittgenstein's Vienna*(1973)가 그러한데, 특히 이들은 모두 공통으로 비트겐슈타인이전의 물리학자였던 헤르쯔 혹은 볼쯔만이 「논고」의 저술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다. 먼저 그리핀은 러셀과 비엔나 서클의 해석을 비판하고 「논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저술의 목표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Tractatus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경험론적:필자] 인식론자라기 보다는 과학에 강하게 기운 논리학자였다. Tractatus를 읽는 데서 기억해두면 유용한 선배들은 한 수학자 그리고 한 물리학자, 즉 프레게와 헤르쯔다... 비트겐슈타인은 Tractatus의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이 저작[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Tractatus는 ‘역학의 원리’도 포함한 ‘모든 자연과학의 원리로 간주할 만하다’(그리핀, 5). 이런 그리핀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논고」의 단순대상은 헤르쯔의 질점, 혹은 물질입자를 모델로 하며, 「논고」의 그림이론은 헤르쯔의 동학모델이론을 모델로 한다.

한편 툴민과 야니크에게는 러셀 및 비엔나 서클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후 나타났던 이른바 ‘논리적 해석’(비엔나, 25)까지도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들은 ‘예를 들어 M. 블랙과 앤스콧의 주석들에서 제시된 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학자인 프레게와 러셀과의 관련에 거의 배타적으로 근거한 “인정된 해석 received interpretation”과 현저하게 차이가’(비엔나, 11) 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툴민과 야니크는 「논고」의 자연과학적 해석을 토대로 그들의 ‘윤리적 해석’(비엔나, 25)을 제시하는 바, 그 이유는 그들이 ‘비트겐슈타인을 논리학자와 언어철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또한 Viennese로서, 그리고 이론물리학도, 공학도로서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알게’(비엔나, 11)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좀 더 좁은 범위에서 「논고」의 존재론 부분만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단순대상이 어떤 것인가만을 자연과학적으로 암시하는 시도는 좀 더 자주 있어왔다. 그 예는 이러하다.

(1) 앤스콧은 「논고」 2.02331이 ‘예를 들어 물질입자particles of matter들을 구분하고

확인하는' 문제를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앤스콤, 111).

(2) D. 키트는 비트겐슈타인의 '대상들은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들과 유사하다'(키트, 293)고 생각한다. 그런데 키트는 대상이 아니라 원자사실을 질점과 비교한다. '이런 비유에서는 존재하는 원자사실은 질점material point과, 가능한 원자사실은 기하학적 점과, 그리고 대상은 한 점의 좌표계와 유사한 것이다. 해석기하학에서 한 점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세 숫자들을 예를 들어 "(3,2,1)"이라고 씀으로써 지적될 것이다. 유사하게 한 원자사실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이름들을 씀으로써 지적될 것이다'(키트, 290).

(3) D. 키트처럼 M. 블랙도 단지 암시 혹은 참고사항으로만 이런 추측을 제시한다: '대상들은 물리적 공간에서 빈 장소들의 좌표들과 유사하며, 원자사실들은 그런 장소들을 종종 점하고 있는 질점들과 유사하다'(블랙, 9).

(4) 남경희는 M. 블랙을 인용하면서 그와 유사하게 추정하나,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과 원자사실의 관계에 대해 필자와 비슷한 생각에 이른다. '비트겐슈타인은 종종 기하학의 좌표를 비유로 들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했는데(3.032; 3.41; 3.42; 5.64) 이는 매우 시사적이다(블랙, 9-10). 이 시사에 따르면 그의 대상은 좌표상의 점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다(NB, 45 참조). 점들이 좌표 상에 놓일 때, 이들은 일정한 위치, 가령 a(1,2), b(1,3), c(2,4) 등과 같은 위치를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a, b, c의 위치가 결정될 때 a는 한 사태 $y = 2x$ 의 일부가 될 수 있고, b는 $y = x + 2$ 라는 사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내적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c는 두 사태 모두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갖는다'(남경희, 55).

(5) 위의 저자들이 단지 비유 혹은 암시에 그친 반면 그리핀은 적극적으로 대상을 질점과 동일시한다. '나는 질점과 같은 것들이 대상들이라고 제시해왔다. 나는 이것들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공간적 대상들이라고 생각한다(2.0121d, 2.013a, 2.0251). 즉 어떤 이가 나로 하여금 '시계가 탁자 위에 있다'라는 진술 뒤의 그림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 진술의 공간적 차원들의 분석에서 나는 결국 질점들에 대해 얘기해야할 것이다'(그리핀, 152).

(6) 한편 고다드는 직접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를 참조해가면서,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개념의 대응물이 헤르쯔의 질점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이 대상에 대해 요구한 것을 행하는, 대상의 명백히 물리적인 유사물 즉 질점으로서의 입자의 개념이 있다. 사실 헤르쯔의 역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이 가정되면 그가 그런 종류의 것을 염두에 두었을 법하다'(고다드, 45)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다드는 헤르쯔의 질점개념이 대상에 대한 「논고」의 제 규정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물질적 입자 대신 현대물리학의 「벡터로서의 입자」(고다드, 61)가 「논고」의 존재론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고」의 단순대상을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과연 「논고」에 대한 옳은 해석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때까지 나타났던 수많은 주석서들, 그리고 '무정부 상태'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이 이제 정리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자연과학적 해석들은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들의 해석을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밀쳐둘 수도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논고」 안에서, 그리고 「논고」 전후의 저술들에서 남겨놓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그리핀의 주장과 톨민과 야니크의 시도, 그리고 고다드의 제안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적 해석들은 아직 불충분하다. 그들의 잘못은 첫째, 비트겐슈타인이 읽었던 당시의 자연과학 저작들, 특히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를 충분히 참조하지 못했거나 둘째, 이와는 반대로 고다드의 경우처럼 「역학의 원리」는 충분히 참조했으면서 「논고」를 잘못 읽은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당시의 자연과학 저작들, 특히 「역학의 원리」의 주요 내용을 따로 소개한 후(2장 2절), 이를 *Notebooks*, *Prototractatus*, *Letters to C. K. Ogden*, 특히 “Remarks on Logical Forms”와 *Wittgenstein und Wiener Kreis* 등 「논고」 전후 저술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과 직접 비교 하며(2장 3절), 그 결과를 「논고」의 존재론 해석에 적용하는 과정을 밟고자 한다(2장 5절 및 3장).⁵⁾ 이런 과정에서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의 ‘대상’과 ‘배열’ 개념이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의 ‘질점’과 ‘배열’ 개념을 전체 자연과학으로 확대적용한 것임을 밝혀내고, 그래서 「논고」는 그리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단 ‘모든 자연과학의 원리’임을, 그리고 「논고」의 존재론은 일차적으로는 자연과학적 존재론임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4장에서 필자는 이런 배경에서 해석된 존재론이 어떤 철학적 귀결을 함축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기존의 존재론과는 어떻게,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2. 존재론: 에피쿠로스의 원자, 헤르쯔의 질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1)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논고」의 존재론이 과거의 자연철학 혹은 19세기말 자연과학에서의 원자론과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는 증거는 NB에서부터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인용문은 그가 과거의 원자론자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사유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다음은 한 합법적 물음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공간적 대상들은 단순한 부분들로 복합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의 분해Zerlegung에서 더이상 분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도달하는가? 혹은 그렇게 아닌가?’ ‘그리고 다음이 <항상 계속> 우리에게 압박해 온다. 어떤 단순한 것, 분해불가능한 것, 존재의 요소, 요약하자면 한 사물Ding이 있음이’(NB, 62). 비트겐슈타인의 분해Zerlegung 혹은 분석Analyse이 러셀의 기술이론에 의한 분석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원자론적 성격 때문이다. 원래 러셀은 “현재의 프랑스왕”, “20세기 첫순간의 태양계의 중심”과 같은 ‘지시구denoting phrase’(러셀, 41)가 포함된 문장을 지시구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으로 분석하려 했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분석을 극단에까지 밀고 나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원자들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려 한다. 그 결과 분석된 문장은 아마 러셀의 경우처럼, 직접지의 대상에 대해 진술하는 몇몇개 문장들의 진리함수가 아니

5) 원래의 석사학위논문에는 이런 결과를 「논고」의 그림이론의 해석에 적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이론이 데카르트, 라메트리, 헬름홀츠 등의 재현이론 theory of representation, 플레하노프의 상형문자설, 맥스웰과 볼츠만의 자연과학적 그림이론, 특히 헤르쯔의 동학모델이론의 종합임을 밝혀려 했다.

라, 진술대상에 포함된 원자들의 수 만큼이나 무한히 긴 요소명제들의 진리함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의자는 갈색이다” 같은 명제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명제를 아무도 우리에게 반대해 그 다의성에서 도출되는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발언하려 하면, 그 명제는 무한히 길어야 할 것이므로’(NB, 5)⁶⁾.

물론 이런 분해에 의해 도달한 것들이 우리의 직접 경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자’에 대한 한 명제가 실제로 완전히 분석된다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명제들>을 그 요소들을 거명하여 언급할 정도로까지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에 거역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우리는 <세계>가 요소들로부터 성립해야 한다고 느낀다’(NB, 62). 사실 이런 생각은 고대 원자론자나 헤르쯔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바, 이들의 원자론은 「논고」의 해석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먼저 용어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미리 도표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한계점들 perata	원자 atom	원자들의 배열 = 체계(복합체) taxis systema & akron
질량미립자들 Massenteilchen	질점 materielle Punkt	질점들의 배열 = 체계 Konfiguration System
대상(사물) Gegenstand(Sache, Ding)		대상들의 배열 = 복합자 = 원자사실 사실 Konfiguration Komplex Sachverhalt, Tatsache

먼저, 경험의 대상을 그 구성분들로 분해해 파악하려는 시도는 서구철학의 시조인 탈레스 이래 고대 원자론자들에게서 그 정점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에피쿠로스는 근대 과학의 역학적 세계관에 상응하는 원자론을 구성했다. 즉 그는 원자들의 속성에 무게를 첨가함으로써 이전의 기하학적 원자론에 하나의 차원을 더 부가했으며 따라서 그의 이론은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우주의 ‘물체들 somata, Körper’ 가운데 어떤 것들은 복합자들이고 다른 것들은 이 복합자를 이루는 단위들이다. 이 단위들은 ‘조개 수 없는 것 atoma’이며 ‘바뀌지 않는 것’이다⁷⁾. 그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물체를 계속해서 조개하면 결국에는

6) 그리핀 역시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탁자에 대한 나의 진술의 분석에서 나는 그걸 구성하는 모든 질점들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석을 엄청나게 길게 할 것으로 보인다’(그리핀, 152). 그래서 ‘Tractatus에서의 분석은 러셀이... 말한 분석과 거의 같지 않으며 요소명제들은 예를 들어 카르남의 프로토클문장들과는 전혀 다르다’(그리핀, 141).

7) “Epicurus, epist. ad Herodotum” §41, Antike Atomphysik, zusammengestellt von Alfred, Stückelberger, 165쪽.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부분들인 물질적인 “점akron”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최소의 것’(윤구병, 79)이다. 그러나 감각의 세계로부터 사유의 세계로 옮겨가면 이것들도 ‘무한히 더 작은 부분들의 집합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 결과 우리는 ‘연장의 “가능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그들 자체로는 어떤 독립성도 지니지 못하고 사고 속에서만 구별되는 “한계점들perata”이다.’ 한편 원자는 이런 한계점들을 불가분의 부분으로 가지며 ‘그 점들의 수에 의해서 “사유속에서” 크기가 계산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물체 - 물질적인 점 - 원자 - 한계점의 계열이 있다. 이중 원자는 ‘사유를 통해 볼 때’ 불가분의 부분들, 즉 한계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크기, 곧 측정가능한 연장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는 “조깅 수 없는 것atom”이다’(윤구병, 80). 또한 에피쿠로스는 단지 크기만으로 원자들의 질량을 셈하는 레우키포스나 데모크리토스와 달리 원자들의 속성에 ‘무게’도 첨가한다.

이들 원자들이 함께 모여 복합자가 된다. 이들 ‘복합체는 원자들의 우연한 모임인 혼합체가 아니고 새로운 실체이며, “유기적 조직체(systema⁹⁾ concilium)”이다’(윤구병, 81). 원래 원자들은 ‘크기, 형태, 무게’(에피쿠로스, 169)라는 세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었으나 복합자가 될 경우 이들은 ‘이차적 성질들을 집단적으로¹⁰⁾ 획득한다’(윤구병, 81).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에 의하면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각 원자들의 차이가 각양 각색의 사물들의 원인이 된다. 각 원자들은 그 모양, 배열, 위치에 의해 차이를 만드는 바 ‘왜냐하면 A는 N과 모양에서 다르고 AN은 NA와 배열 taxis에서 다르며 Z는 N과 위치에서 다르기 때문이다.’¹¹⁾ 이런 점에서는 에피쿠로스도 거의 유사한데, 이런 차이들에 의해 생긴 복합체의 ‘성질들은 원자가 사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과는 달리, 헤르쯔의 체계가 측정도구에 의해 파악되는 것처럼, ‘감관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악된다.’ ‘사실 한 사물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은 그 사물의 성질들의 지각을 통해서이다’(윤구병, 82).

에피쿠로스의 주요 용어들, 즉 ‘원자’, ‘배열’, ‘체계’(혹은 복합체)는 각각 헤르쯔의 ‘질점’, ‘배열’, ‘(물질)체계’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배열’, ‘(원자)사실’(혹은 복합대상)과 상응하며 이들의 속성 역시 많은 것들이 서로 일치한다. 특히 원자의 크기가 한계점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에서의 질점의 규정과 동일하며, 비트겐슈타인이 원자명제들의 구조에 ‘수들(유리수적이고 무리수적인)’(RLF, 33)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유관하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은 무엇보다도 헤르쯔의 메타 역학에 더 잘 수용되어 있다.

(2) 헤르쯔의 원자론

8) 헤르쯔의 질점의 질량에 대한 규정과 거의 동일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9) 희랍어 systasis는 ‘함께 서있음’, ‘구성’, ‘구조’의 뜻이다. 원자들이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은 systema가 된다. 즉 ‘부분들로 복합된 전체’, ‘시스템’이 된다.

10)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대상들은 복합자인 (원자)사실 내에서만 외적 속성, 즉 실질적 속성 materielle Eigenschaft를 갖는다. 즉 한 대상 홀로가 아니라 여러 대상이 결합해서 ‘집단적으로’ 외적 속성을 갖는다.

11)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A4.985b4.

해커에 의하면 '19세기말 20세기 첫 10년은 그 시대 가장 특출한 물리학자들 사이의 철학적 소동의 시대였다. 과학적 설명의 본성, 과학이론의 구조, 과학에서의 진리의 획득가능성 문제가 듀앙, 포앙카레, 마하에 의해 자세히 토론되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지적 발전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철학자 - 과학자는 헤르쯔와 볼쯔만이였다'(해커, 2). 또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 「파동」 등의 저서는 '항상 비트겐슈타인에게 감화를 주는 근원이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전기 저작과 후기 저작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 스스로 인정'(판, 68)하고 있다고 K.T.판은 말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은 특히 틀민과 야니크의 Wittgenstein's vienna에 잘 나타난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들은 현상론 혹은 경험론 진영의 마하, 오스트발트와 실재론 혹은 유물론 진영의 헤르쯔, 볼쯔만의 적대적 대립이 볼쯔만의 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한다. 저자들에 의하면 이들 두 진영 중 마하의 입장은 이후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 헤르쯔, 볼쯔만의 입장은 비트겐슈타인에게 이어졌다(비엔나, 5, 7장).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 대한 해석의 50년간 역사는, 본질적으로는 헤르쯔와 볼쯔만의 이론들에서 도출되었던 언어철학의 논증을, 마하의 경험론에서의 인식론적 연습으로 왜곡시켰던 마하의 철학적 후계자들 - 비엔나 서클 - 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비엔나, 133).

그리핀이 불평하듯이 「논고」가 '실재론적 방식으로' 읽혀지기는 커녕 전혀 그 반대의 방향, 즉 경험론적인 '감각자료방식으로 읽혀진'(그리핀, 111) 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한몫을 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는 「논고」를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와 직접 비교해보면 바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헤르쯔의 저술은 비트겐슈타인의 대상개념뿐만 아니라 「논고」의 존재론 부분에 나타난 여러 난해한 부분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대상의 형식, 즉 '공간, 시간, 그리고 색(색깔있음)'(2.0251)이란 바로 「역학의 원리」의 근본개념인 시간, 공간, 질량의 자연과학 전체로의 확대판이다. NB와 「논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좌표', '척도', '논리적 좌표', '논리적 공간' 등의 개념 역시 「역학의 원리」를 읽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가. 제1권 : 질점과 원자

헤르쯔 이전의 전통적인 뉴턴역학 및 에너지론은 그들 역학의 근본개념으로서 공간, 시간, 힘, 질량 혹은 공간, 시간, 에너지, 질량의 네가지 개념을 채택했다. 그러나 「역학의 원리」 서론에서 헤르쯔는 이중 힘 혹은 에너지는 '단지 헛도는 옆바퀴들 leergehende Nebenräder'(헤르쯔, 14)로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그는 '단지 세가지 독립적인 공간, 시간, 질량이라는 근본표상들에서 출발한다'(헤르쯔, 29).

한편 본론으로서 헤르쯔는 자신의 「역학의 원리」를 제 1권과 제 2권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중에서 제 2권은 척도들에 의해 관찰되는 경험의 대상을 다룬다. 이에 반해 제 1권은 '경험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며 여기서의 '모든 주장들은 칸트의 의미에서 선험적 판단들이다.' 그래서 2권과는 달리 1권에서 첫째, '시간은 우리의 내적 직관의 시간'이며 둘째, 공간은 '우리 표상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부여한 모든 속성들을 가진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이다.' 그리고 셋째, '1권의 질량은 정의를 통해 도입된

다'(이상 헤르쯔, 53). 질량에 대한 정의에서 헤르쯔는 에피쿠로스와 거의 동일한 추론과정을 밟는다. 먼저 에피쿠로스에게서 '무한히 더 작은 부분들'인 사유의 '한계점들perata'(윤구병, 80)처럼 헤르쯔의 '질량미립자들Massenteilchen'의 질량도 '정의에 따라 무한히 작을 수 있다.' 에피쿠로스의 원자가 한계점들을 불가분의 부분으로 가지며 그 수에 의해 크기가 계산되듯이 헤르쯔의 질점도 질량미립자들이 서로 결합된 것이며 그 수에 의해 질량이 계산된다. 특히 헤르쯔의 질점의 질량은 무리수가 없었던 고대 원자론과 달리 '모든 유리수적 혹은 무리수적인 값을 취할 수 있다'(이상 헤르쯔, 54). 이런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에게까지 이어진다. 즉 원자명제에는 '(유리수적이고 무리수적인) 수들'(RLF, 33)이 포함된다.

또한 에피쿠로스의 '체계'는 그대로 헤르쯔의 '체계'가 된다. '많은 수의 동시에 고찰된 질점들은 질점들의 체계, 혹은 간략하게 한 체계system라 불린다'(헤르쯔, 54). 그리고 헤르쯔의 단순자는 질점이다. 즉, '질점은 체계의 가장 단순한 예로 간주될 수 있다.' 고대 원자론자들의 '배열'도 마찬가지로 헤르쯔의 배열이 된다. '한 체계의 점들의 서로간의 위치의 총체는 그 체계의 배열Konfiguration이다'(같은 책, 57). 그리고 '한 질점의 위치는 고정된 축 체계에 관한 그것들의 세 직각 직선들의 데카르트 좌표Koordinaten의 부여에 의해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좌표들은 항상 x_1 , x_2 , x_3 로 기호화되어야 한다'(같은 책, 56).

물론 이 모든 주장은 경험과 무관하다. 시간과 공간, 질량미립자와 질점 및 체계에 관한 1권의 모든 주장들은 일단 '칸트적 의미에서 선험적 판단들'이다. 즉 경험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다. 특히 질점에 관한 주장은 현실세계의 경험에서 추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헤르쯔의 질점은 원래 당시 자연과학에서 현실세계에 있으리라고 추정했던 원자였다. 헤르쯔, 특히 볼쯔만은 원자의 존재를 부인했던 마하와 아베나리우스의 사유경제설에 반대해 원자론을 고수했으나 당시의 실험과학은 아직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헤르쯔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어쨌든 현재 무게달 수 있는 물질이 원자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특정한 경우들에서 이 원자들의 크기와 그것들의 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확정된 표상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자들의 모양, 그것들의 연관, 운동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전혀 숨겨져 있다'(헤르쯔, 서론 21). 그러니 이것들의 감각적 경험, 혹은 측정에 기초한 '역학의 원리'는 세울 수 없다. '...원자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은 따라서 더 진전된 탐구의 중요하고 흥미있는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특히 수학적 이론의 알려진, 확신된 기초로서 기여하기에는 전혀 부적합하다'(헤르쯔, 27).

헤르쯔가 제 1권을 경험과 무관하게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원래 「역학의 원리」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유일하게 가치를 두는 것은 [역학]전체의 정렬과 정돈, 그래서 대상의 논리적인 -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 철학적 측면이다'(헤르쯔, 서문 xxvii). 그의 '논리적' 전략은 이러하다: 원자, 혹은 질점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에 대해 만드는 그림에는, 우리의 고유한 창조물로서의 처방Vorschriften을 내릴 수 있다'(헤르쯔, 28). 그 처방이 바로 '칸트적 의미에서의 선험적 판단들'인 제1권의 주장들이며 질점도 그러하다. '우리에게는 물질체계가 직접 주어지며 개별적 질점은 추상이다... 모든 실제의 경험은 단지 체계들에서

만 직접 획득되며, 단순한 점들에서의 가능한 경험들은 그로부터 (오성)추리 Verstandeschlüsse를 통해 도출된다'(같은 책, 37).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뿐만 아니라 헤르쯔도 질점의 예를 들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비트겐슈타인이 *Prototractatus*를 쓸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논고」를 출판하기까지도 거의 비슷했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헤르쯔를 따랐다. 맬컴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비트겐슈타인에게 그가 「논고」를 쓸 당시 단순대상의 예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낸 일이 있었는데 물은 일이 있다. 그는 그 당시 자기의 생각은 자신이 논리학자라는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 저것이 단순한 것인지 또는 복합적인 것인지를 결정지으려는 노력은 순전히 경험적인 문제로 논리학자로서의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맬컴, 86). 그리고 그건 「역학의 원리」 제1권을 쓴 헤르쯔의 입장이기도 하다. 헤르쯔와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NB에서부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단순한 대상을 혹은 그걸 말하는 명제들을 전혀 도외시한 채 [단순자]의 이념에 도달하며, 논리적 필연성으로서의 단순한 대상들의 존재를 - 실험적으로 - 통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순한 대상들에 대해 얘기하나 단 하나의 대상도 예를 들 줄 모른다'(NB, 60). 이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원자론은 경험적 원자론이 아니라 논리적 원자론이다. 또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에 피쿠로스와 헤르쯔의 원자론도 논리적 원자론이다.

나. 제2권 : 측정과 체계

이에 반해 「역학의 원리」 제2권은 경험의 대상들을 다룬다. 그건 우리의 외적 경험에서 측정도구, 즉 척도를 가지고 대면하는 대상들에 관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시간들, 공간들, 질량들을...외적 경험의 대상들을 위한 기호로 이해한다. 따라서 시간들, 공간들, 질량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우리의 진술들은 더 이상 우리 정신의 요구들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한 특히 미래의 경험들에 상응해야 한다.' 사실 1권에서의 '시간, 공간, 질량은 전혀 우리 경험에 어떤 의미에서도 접근되는 게 아니며,' 단지 현실에서 경험되는 '특정한 시간들, 특정한 공간적 크기들, 특정한 질량들만 그러하다'(이상 헤르쯔, 157). 외적 경험의 이런 특정한 양들은 척도의 도움으로 측정한다. 첫째, '시간의 지속을 우리는 경도측정용 정밀시계Chronometer의 도움으로 그것의 진자의 충들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지속의 단위를 우리는 자의적 협약willkürliche Übereinkunft을 통해 확정한다'(헤르쯔, 158). 이런 생각은 「논고」에서 반복된다. '우리는 어떤 과정도 "시간의 경과" - 이런 것은 없다 - 와 비교할 수 없으며, 오직 다른 과정(경도측정용 정밀시계의 진행과 같은)과만 비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공간에도 해당된다'(6.3611). 둘째, '공간의 관계들을 우리는 응용기하학의 규칙에 따라 자의 도움으로 정한다. ...떨리 떨어진 항성을 고려하여 정지하는 좌표체계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나머지는 자의적 협약에 의해 규정된 좌표체계가, 한 정해진 장소의 징표로 기여한다.' 셋째, '잡을 수 있는 물체들로 움직여진 질량들을 우리는 저울의 도움으로 정한다. 질량의 단위로서 우리에게는 자의적 협약을 통해 규정된 물체의 질량이 기여한다'(헤르쯔, 158).

「논고」의 존재론, 그리고 그림이론의 해석에 있어 「역학의 원리」 제2권, 특히 측정에 관

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측정을 위한 위의 세가지 약속은 바로 인간과 세계간의, 그중에서도 역사적 세계와의 대화를 위한 자연과학적 규칙이다. 즉 이것들은 먼저 '외적 경험, 즉 구체적인 감각들과 지각들을 우리의 내적 그림Bild의 기호언어로 번역하고 übertragen, 거꾸로, 이 그림의 사유필연적 귀결들을 다시 가능한 감각들과 지각들의 형태로 번역하는übersetzen 그림규칙Abbildungsgesetze'(헤르쯔, 159)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이렇게 수용한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실의 그림Bild을 그린다'(2.1). 둘째, 이 그림은 다시 사실과 맞춰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의 일종인 '명제에서 생각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게 표현된다'(3.1). 그리고 '그림은 척도처럼 실제에 갖다 대어진다'(2.1512). 이때 '눈금선의 가장 바깥 점들만이 재어지는 대상과 접촉한다'(2.15121). 여기서 '척도'와 '눈금선'이란 말은 실제로 자연과학의 측정과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

또한 헤르쯔에게서 이런 규칙은 매우 '자의적인 협약'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런 자의성은 경험의 대상, 혹은 진술의 내용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딱 척도를 규정하면, 그림 우리의 진술들의 형식이 상응해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진술된 과거, 미래의 경험들이 동일하게 남는 방식으로'(헤르쯔, 160). 비트겐슈타인은 이것 역시 받아들인다. '우리의 표기법에는 실로 자의적인willkürlich 어떤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이것>은 자의적이 아니다'(3.342). '직각 측들의, 말하자면 우리 시야에 그어진 십자형 철사들의 한 체계와, 한 고정된 자의적인 자an arbitrary scale를 상상하라'(RLF, 33). 하필이면 직각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 척도의 단위를 정하는 것, 이 모두는 자의적 협약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은 결코 자의적이 아니다. 사실 일상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방식도 이런 점에서는 거의 마찬가지이다.

한편 질점들의 복합체인 '한 물체체계는 ...경험의 질량의 체계로 이해된다'(헤르쯔, 160). 질점과는 달리 그것들은 경험, 즉 척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체계를 인식하고 제시하는 일반적인 수단을 갖는다'(헤르쯔, 161). 에피쿠로스의 원자와 한계점들이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서는 파악될 수 없듯이 헤르쯔의 질점과 질량미립자들 역시 경험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체계들은 우리와 측정 혹은 경험에서 만나는 것들이다.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에서 질점은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대상과 유사한, 그러나 단지 역학만에서의 단순자이다. 이에 반해 비트겐슈타인의 대상은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학에서의 단순자이다. 그래서 대상의 형식은 헤르쯔에게서처럼 시간, 공간, 질량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 색으로'(2.0251) 확대된다. 이때 '색'에는 질량을 포함해 소리의 '높이', 물체의 '크기', 시각적인 '색깔'(2.0131) 등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대상의 형식, 즉 대상을 측정하는 척도의 종류가 상이함에 따라 단순대상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12) 특히 「논고」 2.1515의 '촉수들Fühler'이란 바로 크로노미터, 자, 저울 등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논고」의 출판을 위한 교정작업 중 썼던 「오그든에게 의 편지」에서 이 '촉수'란 '파리가 가진 것'(오그든, 24)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든 척도들의 눈금들은 파리의 촉수처럼 검고, 그 길이도 비슷하다.

(3) 일상적 경험의 언어와 자연과학적 경험의 언어

「논고」의 존재론 부분, 즉 1~2.063은 여러번 세밀히 읽어봐도 이것이 과연 자연과학의 존재론일 수 있는지 거의 추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4.11 및 6.341 이후의 자연과학에 대한 문장들 역시 책 전체의 대부분인 논리학, 의미론 부분과 별 연관 없이 마치 삽입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논고」이후 1929년에 처음 쓴 “Some Remarks on Logical Form”은 「논고」의 전체 서술목적이 일차적으로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이었음을 직접 암시해주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그의 존재론이 바로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의 확대판임을 보여준다.

그의 논문의 도입부에서 먼저 「논고」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나를 밝힌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어진 명제들을 분석하려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더 단순한 명제들의 논리적 합들, 곱들, 혹은 판 진리함수임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러셀의 기술이론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면, 그 자신은 더 간단한 명제형식들로 구성되지 않은, 명제형식들에’ 이른다. 이것을 그는 ‘원자명제’(이상 RLF, 32)라고 부르는 바, 이런 원자명제들의 논리적 형식이 어떤 것인가를 대강이나마 설명하는 것이 이 “논리적 형식에 관한 약간의 고찰”이라는 논문의 주목적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일상언어의 틀 내에서 추측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상언어에 의해 원자명제들의 구조에 관한 그런 추측들로 인도되는데, 일상언어는 주어-술어형식과 관계형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비유에 의해 설명한다. ‘두 평행된 평면 I과 II를 상상해 보자.’ 평면 I에는 실제의 사실들이 있고 평면 II에는 이를 표현한 문장들이 있다. 그런데 일상언어는 평면 I의 사실들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 ‘평면 I 위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타원들과 직사각형들이 있으며 ‘이 도형들의 상image들을 평면 II에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 방법으로 ‘첫째, 투사의 법칙 - 예를 들어 직각투사 혹은 어떤 판 투사의 법칙 - 을 주고 모든 도형들을 I에서 II로 이 법칙에 따라 계속 투사할 수 있다’(이상 모두 33). 둘째, ‘평면 I 위의 모든 타원이 II에서 원으로, 모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두번째 제시방법은 ‘만약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평면 II 위에 단지 원과 정사각형만을 그리기를 선호한다면 우리에게 더 간편할 것이다’(34). 실제로 우리 일상언어는 사실의 모든 세세한, 그리고 정확한 국면을 모두 표현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평면 II의 도형들에서 ‘원래 도형들의 정확한 모양들은 직접 추론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원래 것이 타원 혹은 직사각형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원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 한 특수한 타원이 원으로 투사되는 개별 방식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제의 사실들이 (평면 I의) 타원과 직사각형에, 주어술어형식과 관계형식들이 평면 II의 원들과 정사각형들에 상응한다.’ 주술형식과 관계형식들은 ‘<그렇게나 많은 다양한> 논리적 형식들을 투사하는 우리의 특수한 언어의 규범들이다’(이상 RLF, 33).

일상언어의 형식들에 대한 이런 고찰은 사실 NB에서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일상언어는 명제의 구조를 은폐한다. 거기서 관계들은 술어들처럼 보이며 술어들은 이름들처럼 보인다

등등'(NB, 96). "aRb"에서 "R"은 실사Substantiv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유사하게 "φx"에서 "φ"는 실사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NB, 99).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언어, 즉 두번째 제시방법으로 그려진 평면 II의 각 도형이 논리적으로 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논고'도 마찬가지다. 물론 거기서도 '일상언어로부터 언어의 논리를 직접 채취해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4.002b). 왜냐하면 '일상언어는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일부이며, 그것에 못지 않게 복잡'(4.002a)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언어의 모든 명제들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5.5563). (비트겐슈타인은 PI §97에서 이 문장을 거론하고는 후기에는 그런 '순수 수정' 같은 논리를 더이상 일상언어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언어가 그런 '순수 수정' 같은 논리를 가졌다해도 실제의 모든 논리적 형식을 다 투사하진 못한다. 그래서 '기술된 현상들의 실제 논리적 형식에 관해서는' 일상언어의 투사규칙을 사용해선 안된다. 예를 들어 "이 논문은 지루하다is boring", "날씨가 좋다 is fine", "나는 게으르다am lazy" 같은 형식들은 서로 간에 공통인 어떤 것도 갖지 않는 데도 주술명제들 즉 외면상 같은 형식의 명제들로 제시된다.' 일상언어는 심지어 주술형식과 관계형식들이 실제의 형식이라고 믿게끔 잘못 인도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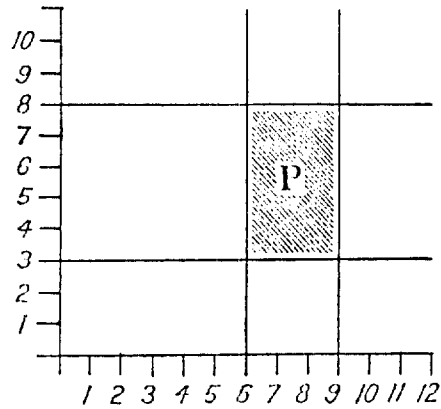
그러므로 '실제의 분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상언어의 규범들과는 거의 유사성을 갖지 않는 논리적 형식들을 발견한다.' 현상들의 실제 논리적 형식은 이러하다. 첫째, '색깔들, 소리들 등등과 같은 공간적 시간적 대상들의 전체 다양체¹⁴⁾와 함께 공간과 시간의 형식들', 둘째, '그것들의 단계들(혹은 정도들)graduations, 연속적 전이들 continuous transitions, 다양한 비율들proportions에서의 결합들combinations.' 그러나 '이것들 모두 다 우리의 일상적 표현방식으로는 잡을 수 없다'(이상, 33). 여기서 '단계들'[혹은 '정도들']은 예를 들어 색깔의 '밝기', 소리의 '세기'나 '높이'(RLF, 34) 등 측정의 정도들을, '연속적 전이'는 예를 들어 역학적 질점의 연속운동을, 다양한 비율들에서의 결합'은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결합 등등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형식들을 잡으려면 '수가 들어와야 한다.' '실제 현상들의 논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그것들의 제시를 위해 수들(유리수적이고 무리수적인)이 원자명제들 자신의 구조에 들어와야 한다'(33).

13) 이와 유사한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의 '공간-시간이라 불리우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물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간단하면서도 매우 비슷한 비유를 들어보자. 당신이 책 한권을 밝은 불 앞에 갖다 대고 벽에 비친 그림자를 관찰한다고 가정하자. 책 모서리를 대면 가는 그림자가 생기고 책 앞면을 대면 넓은 사각형의 그림자가 생긴다. 벽 위에 전개되는 2차원의 그림자의 세계는 그 책의 구체적인 실재reality를 일시에 다 나타낼 수 없다: 책은 자신의 자연적인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이 비유에서 각각의 차원을 하나씩 더 올려보면, '움직이는 4차원 물체의 수축된 "그림자"만이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다'(마치, 188). 따라서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일상적 경험만으로는 4차원 물체를 잘못 표상하게 된다.

14) 다양체manifold란 한 대상의 모든 (측정)차원을 말한다. 헤르쯔에게서 시간과 공간만을 고려하는 '운동학Kinematik'은 'n개 점들의 한 체계, 즉 3n 다양체Mannigfaltigkeit의 운동을 제시'(헤르쯔, 36)한다. 즉 그 점은 (x1, x2, x3)라는 세계의 좌표로 제시되고 그런 뒤 시간을 고려해 속도, 이동거리, 가속도 등이 계산된다.

수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투사방식에는 측정이 관련되어 있다. 그 방법은 이러하다. '직각 축들의, 말하자면 우리 시야에 그어진 십자형 철사들의 한 체계와 한 고정된 자의적인 자an arbitrary scale를 상상하라'(33). 여기서 '직각 축들의 체계'란 데카르트 공간의 세 직각축으로 이루어진 좌표체계를 말하며, '자의적인 자'는 헤르쯔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자의적 협약willkürliche Übereinkunft을 통해 확정'(헤르쯔, 158)된 측정도구이다. 헤르쯔에게서 단위들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듯이 비트겐슈타인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우리는 선택된 좌표들과 단위의 체계에 관련하여 그 의미significance를 갖는 수들의 진술들에 의해 우리 시야의 색들의 모든 얼룩의 위치와 모양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의 예를 들어보자. 단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완전히 분석된 단순대상이 아니라 한 복합자의 예를 든다. 즉 '한 얼룩 P를 표현 "[6-9,3-8]"에 의해 제시' 하고 이 복합자에 대한 '한 명제, 예를 들어 P is red를...부호 "[6-9,3-8]R"에 의해 제시 하는 것.' 여기서 "'R"은 아직 분석되지 않은 항'이며 "'6-9"와 "3-8"은 각각의 수들 사이의 연속적 간격을 표현한다'(이상, 33).



물론 이 설명은 직접 원자명제의 논리적 형식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 암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R'뿐만 아니라 얼룩 P도 완

전히 분석된 게 아니다. 또 '여기서는 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2차원적 공간의 사용은 심지어 외눈박이 시야의 경우에서조차 정당화되지 않는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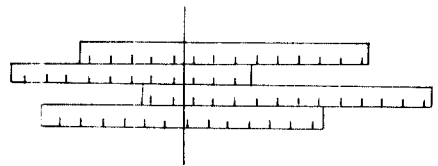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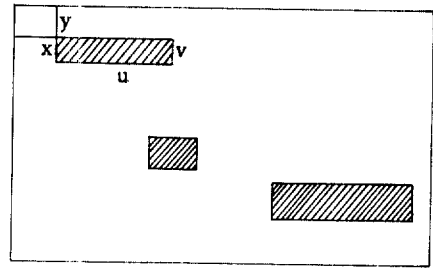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분석'은 그가 '믿기에 시각적 현상들의 분석이 탐구되는 방향을 지적'해 주며 일상언어의 형식들과는 '전혀 다른 논리적 형식을 만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원자명제들의 형식들에서의 수들의 등장은... 제시의 본질적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한 특수한 부호법symbolism의 특징이다.' 즉 '단계들 [혹은 정도들]을 허용하는 속성들, 즉 한 간격의 길이, 한 소리의 높이, 어떤 색조의 색의 밝기 혹은 붉기 등등과 같은 속성들을 다룰 때, 수들이 이 형식들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이상 RLF, 34). 그래서 「논고」에서도 2.0131에 나타난 '어떤 색깔', '음의 높이', '축각대상의 굵기'는 모두 수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원자명제들의 논리적 형식이 이처럼 일상언어의 주어-술어형식, 관계형식과 다르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RLF를 쓴 후 술리크와의 대화에서 다시 주장한다. 특히 이것은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프레게와 러셀이 대상들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항상 언어상 실사Substantiv(명사, 대명사 등 :필자)에 의해 묘사되는 것을 눈에 띄우렷다. 그래서 우리는 책상, 의자와 같은 물체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상들에 대한 전체 생각은 바로 명제들의 주어-술어 형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들, 자연과학의 명제들의 논리적 형식은 이와 전혀 다르다. 거기엔 주어-술어 형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이런 뜻에서 대상들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비트겐슈타인의 대상들에 대한 기술방식은 이렇하다. ‘이제 나는 방울 전혀 달리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 방의 표면을 방정식Gleichung을 통해 해석학적으로 analytische 기술하며, 이 면 위에 색의 분배를 제시한다’(이상 WWk, 41). 혹은 더 간단한 예로서 여러 색이 칠해진 ‘한 평면, 예를 들어 이 종이조각’을 기술해보자. 그럼 ‘종이 조각 위에 색의 분포를 기술하는 한 명제형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연속적 이행이 없는 명백한 색 경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기술하는 것은 색 경계들이다. 그건 해석기하학의 방정식을 통해 일어난다’. 그 결과 우리는 대상의 첫번째 형식, 즉 개별 공간을 기술한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색들을 기술해야 한다. 그것은 색 기술의 어떤 체계, 예를 들어 색목록들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는 다양한 그런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대상의 세번째 형식, 즉 개별 색을 기술한다. ‘그 기술은 그래서 선들과 색 목록의 방정식을 포함한다’(WWK, 74-75). 따라서 ‘이런 형식의 기술에서는 개별적 대상들, 즉 의자들, 책들, 책상들 그리고 그것들의 공간적 위치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관계Relation도, 있지도 않은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WWK, 42). ‘논리적 다양성¹⁵은 주어와 술어, 혹은 관계를 통해 그려지지 않으며, 예를 들어 물리적 방정식을 통해 그려진다. 여기서 개개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WWK, 43). ‘만약 사람들이 여기서 일상언어의 익숙한 형식, 즉 주어 술어와 이항관계 동등으로 변용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웃기는 일이다’(WWK, 42).

이제 대상들의 형식들, 그리고 이를 표현한 좌표들의 체계에 대해 더 알아보자. 비트겐슈타인은 위의 ‘예를 더 단순화하길 원하며 다음을 가정한다: 내가 기술해야 하는 색 목록들은 단지 종이조각의 면들에 평행하게 놓여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뿐이다.’[그림 a] 이 중에서 ‘모든 직사각형을 나는 네개의 수 제시로, 즉 오른쪽 위의 모퉁이 점의 좌표들과 길이, 너비를 통해, 그래서 (x,y;u,v)로 기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직사각형의 색을 색스칼라를 제시함으로써 기술할 수 있다. 색들은 물론 길이의 다양성을 갖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의> 척도들로 재어질 수 없다. 그래서 색의 배치를 명제들로 기술하는대신, 나는 또한 척도들의 한 체계로 기술할 수 있다. 나는 좌표들이 기술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많은 척도들을 가지며 이 척도들을 이렇게 놓는다.’[그림 b]



- 15) 「논고」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눈금선의 가장 바깥점들만이 재어지는 대상과 접촉한다’(2.1521). 즉 우리는 ‘색 경계’에 닿는 가장 바깥쪽의 눈금선을 읽고 기록한다.
- 16) 이런 ‘논리적 다양성’은 또한 수학적 다양성이기도 하다. 「논고」에서 주장된 바처럼 이 물리적 방정식은 그려지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수학적) 다양성을 소유’(4.04)하고 있다.

옆의 그림 b에서 수직선이 지나는 척도들의 각 눈금은 대상들의 형식에 해당한다. 우리는 대상들을 여러 척도로 측정하며 그 눈금들을 대신한수들의 모임이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를 구성한다. 즉 '그런 평면의 완전한 기술은 그렇게 놓여진 척도체계의 그룹을 통해 성취된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실제로 한 좌표를 준다: 한 색, 한 명암, 한 굵기 그리고 등등.' 따라서 '모든 명제는 척도처럼 실제에 갖다 대어지는 한 명제 체계 내에 있다(논리적 공간)'(이상 WWK, 75~76). 이 말은 「논고」 2.1512 '그림은 척도처럼 실제에 갖다대어진다'를 잘 설명해준다.

물론 위의 설명은 원래 요소명제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요소명제의 예를 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이론상 척도의 눈금이 바로 단순대상에 닿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측정은 단순대상이 아니라 복합대상, 헤르쯔의 용어로는 한 '물질체계'에서 일어날 뿐 직접 단순대상, 한 '질점'이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복합대상들의 측정에서 단순대상들의 형식을 추론해낼 수 있을 뿐이다. 요소명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의도한다: 요소명제들의 전 영역에서 한 원칙이 지배한다. 그건 이리하다: 요소명제들의 형식은 예견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현상들을 분석하고서야 우리는 요소명제들이 어떤 형식을 갖는가를 안다'(이상 WWK, 42).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일상언어의 익숙한 형식, 즉 주어술어와 이항관계 등등'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미 요소명제에 실수 혹은 실수와 유사한 것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요소명제가 모든 단 명제들과 얼마나 완전히 다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WWK, 42).

(4) 대상의 측정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단순대상의 예를 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상의 이름도, 그리고 이 이름들로 구성된 요소명제의 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논고」의 이해를 위해 다음의 시도는 행할 수 있다. 먼저 비트겐슈타인은 RLF에서 한 색 복합자에 대한 표현, 「(6-9,3-8)R」을 단지 '시각적 현상들의 분석이 탐구되는 방향을 지적'(RLF, 34)해주기 위해 예로 제시했었다. 이제 우리는 이 분석을 더 밀고 나가도록 해보자. 단, 엄격한 측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피쿠로스처럼 '사유 속에서' 혹은 헤르쯔처럼 '선형적으로' 단순대상에 이르기까지 분석해보자. 이런 시도는 이미 그리핀도 시사한 적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색진술 「(6-9,3-8)R」의 예는 충분히 분석된 게 아니다. 아마 「논고」에서 부더는 더 나아간 분석이 이 예의 노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전체 영역 (6-9,3-8)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대신 우리는 좌표체계가 정의하는 각 부분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다...이 진술들의 논리곱은 원래의 진술과 동치가 될 것이다'(그리핀, 86).

하지만 우리는 논의를 헤르쯔로부터 출발하기 위해 색얼룩이 아니라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분석해보자. 먼저 비트겐슈타인이 RLF에서 지적했듯이 위의 표현은 '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단지 '2차원 공간'(RLF, 34)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니 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세계의 직각 직선들의 데카르트 좌표의 부여에 의해 제시되는'(헤르쯔, 56) 3차원 공간을 사용하고 여기에 시간차원도 부가하자. 그럼 예를 들어 질량 M의

한 물체는, 어떤 지점을 좌표상의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정하고 나면, 어떤 순간 t_1 에 "[3-4,4-5,5-6][t_1]M"처럼 표현될 것이다. 또한 이 물체는 일정 크기의 복합자인 바, 분석을 계속하면 우리는 점과 같이 가장 작은 물체, 즉 '질점'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질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그리고 어느 정도 질량을 갖는지를 실험에 의해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게 있다고 '사유 속에서' 혹은 '선험적으로' 추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단순자가 거의 점과 같을 것이며 따라서 데카르트 좌표상의 세계의 공간차원 각각에서 거의 간격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한 물체의 크기를 측정할 때 결국 우리는 그 물체의 가장자리를 측정하며, 그래서 척도의 '눈금선의 가장 바깥 점들만'을 그런 경계점들에 '접촉'(2.15121)시킨다. 이런 경계점들을 우리는 단순대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이 물체의 표면에 있다고 추정되는 한 질점은 질량을 m_1 으로 추정해서 "[3,4,5][t_1][m_1]"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이것이 *Prototractatus*에서 언급된 단순대상인 질점의 이름일 것이다(t_1 , m_1 은 복잡한 숫자를 대신해 쓴것이다).

이제 이런 이름들로부터 요소명제를 추정해보자.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요소명제는 이름들의 한 연관, 한 연쇄'(4.22)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예를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다. 뉴턴 공간에서 두 대상(질점)은 서로 만유인력을 미친다. 그 대상들의 이름은 "[3,4,5][t_1][m_1]"과 "[4,5,6][t_1][m_2]"로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요소명제는 이 이름들의 한 '연쇄'이니 이 경우 요소명제는 "[3,4,5][t_1][m_1], [4,5,6][t_1][m_2]"가 된다. 물론 이 명제는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건 단지 숫자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 뉴턴 공간을 다루는 뉴턴역학의 '맥락Zusammenhang'(3.3)에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즉 첫째, 이런 맥락에서 숫자들의 모임으로 표현된 각각의 이름은 그 뜻Bedeutung로서 한 질점을 뜻한다. 둘째, 이 요소명제는 다음을 의미한다: 두 대상이 동일 시간 t_1 에 거리

$$\sqrt{(4-3)^2 + (5-4)^2 + (6-5)^2} = \sqrt{3} \text{ 에 있으므로,}$$

이들간에는 $F = G \cdot m_1 \cdot m_2 / (\sqrt{3})^2$ 의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름과 요소명제는 이처럼 자연과학에서의 측정과 유관하다. 그 결과 비트겐슈타인의 이름과 요소명제에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수들이 등장하며, 그것도 어떤 척도로 측정되든 모두 동일한 종류의 수들로 등장한다. 그것은 자연과학의 다양한 측정 결과들이 모두 결국은 각종 척도들의 눈금의 갯수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한 요소명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요소명제 "[3,4,5][t_1][a_1], [4,5,6][t_1][a_2]"에는 단지 숫자들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이름이 어떤 단순대상을 뜻하는지, 이 요소명제는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논고」의 명제들은 '맥락Zusammenhang'을 가진다. '오직 명제만이 의미를 갖는다: 명제의 맥락 속에서만 이름은 뜻을 갖는다'(3.3). 만일 위의 요소명제가 뉴턴 역학의 '맥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뉴턴 역학의 한 정리, $F = G \cdot M_1 \cdot M_2 / R^2$ 의 한 적용례인 $F = G \cdot a_1 \cdot a_2 / (\sqrt{3})^2$ 을 그 의미로 가지며, 위의 요소명제 속의 이름들이 두 질점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안다. 만일 위의 요소명제가 전자기학의 '맥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전자기학의 한 정리, $F = K \cdot Q_1 \cdot Q_2 / R^2$ 의 한 적용례인, 이것 역시 뉴턴 역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표현

되는, $F = K \cdot a_1 \cdot a_2 / (\gamma^3)^2$ 을 그 의미로 가지며, 위의 요소명제 속의 이름들이 두 전자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안다. 요소명제들 속의 숫자들은 모두 눈금들의 갯수만 표현하므로 우리는 이런 맥락, 즉 좌표체계 혹은 척도체계¹⁷⁾와 정리들을 알지 못하면 위의 명제들도, 적용례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5) 대상의 형식

위의 분석에서 우리가 도달했던 헤르쯔의 '질점'이 자연과학 전체로 확대되면 비트겐슈타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논고」는 '질점'(6.3432), '입자'(6.3751)에 대한 두 번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존재론 부분인 1~2.063에서는 이런 생각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특수자, 혹은 개별자인가 아니면 보편자인가 하는 논쟁이 생겨날 수 있었는데, 이를 '질점'이 직접 언급되는 *Prototractatus*와 비교해보자.

Prototractatus	Tractatus
2.0141 사물은 무한공간에 둘러싸인 질점이라 (Das Ding sei der materielle Punkt mit dem unendlichen Raum um sich). 무한 공간이 없는 질점은 생각할 수 없다.	2.0131a 공간적 대상은 무한한 공간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2.01411 공간적인 점은 <이런 생각에 따라> 한 독립변항 자리이다.	b (공간적인 점은 한 독립변항자리이다.)
2.0142 視界 속의 얼룩은 붉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색깔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색깔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음은 <한> 높이를 가져야 하고, 축각의 대상은 <한> 굵기를 가져야 하며, 등등.	c 시계속의 얼룩은, 붉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색깔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색깔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음은 <한> 높이를 가져야 하고, 축각의 대상은 <한> 굵기를 가져야 하며, 등등.
2.0251 공간과 시간은 대상들의 형식들이다.	2.0251 공간, 시간, 그리고 색(색깔있음)은 대상들의 형식들이다.
2.0252 마찬가지로 색(색깔있음)은 시각적 대상들의 형식이다.	

만일 *Prototractatus*의 2.0141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대상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사전에 예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 왜 「논고」에서는 이게 빠졌는가?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첫째 *Prototractatus* 2.0141에서 대상을 질점으로 한정

17) '맥락', 즉 (언어의 경우) 좌표체계, 혹은 (축정의 경우) 척도체계는 각각 후기 저작인 PI에서의 '말놀이' 혹은 '생활양식'과 대응된다. "나는 막대와 레버를 연결해 브레이크를 만든다." - 그렇다. 그 메커니즘의 나머지 총체가 주어져서, 그것과 접속해서만 그것은 브레이크 레버다. 그것과 떨어지면 그건 레버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PI, §6).

해 놓으면 그 뒤의 '한 얼룩', '음', '소리', '촉각대상'은 모두 질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 질점의 형식은 시간, 공간, 질량이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Prototractatus*에서부터 대상의 형식을 시간, 공간, 색, (혹은 색깔있음)으로 정해 놓았다. 우리는 *Prototractatus*의 '시각적 대상'(2.0252)을 단지 기하학적, 유색의 도형들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여기에는 음, 촉각대상처럼 비 시각적인 대상도 포함할 수 있다. 즉 '시각'을 모두 '감각적 지각'의 은유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연과학의 여러가지 감각적 지각, 즉 각각에 알맞는 측정방법으로 측정될 것인데, 이 중에서 질점은 '저울'(헤르쯔, 158)로 달아진 '체계'에서 추상된 대상이다. 이에 반해 색의 얼룩, 음, 촉각대상들은 다른 측정도구로 측정된다. 그러니 단지 한 종류의 측정도구의 대상인 '질점'을 이들 모든 측정대상들을 대표하게 규정하면 그건 부당주연의 오류를 범한 격이 된다. 그러니 '질점'이란 용어는 사라져야 한다. 둘째, *Prototractatus*를 쓴 이후 '논고'를 출판하기에 이를 때까지 비트겐슈타인이 물리학의 변화를 의식했을 수 있다. 즉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에서 질점은 물체의 체계에서 추상된 존재였으며 이것은 원자라고 믿어졌던 것인데, 당시에 단순자라고 여겨졌던 원자는 다시 쪼개져 물리량이 서로 다른 핵과 전자로 더 분석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이제 '질점'이란 용어는 더이상 쓸 수 없고 대신 결국 어떤 것이 단순한 것으로 밝혀지든 그때마다 모두 동일한 용어, 즉 '대상'으로 대표하려 했을 수 있다.

이런 수정의 결과, *Prototractatus*의 한 질점은 질량만 갖는 게 아니라 색, 음, 촉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논고」에서 이들은 각자가 따로 대상이 된다. 헤르쯔에 의하면 '...시간, 공간, 질량은 경험의 대상들로 도입된다'(헤르쯔, 32). 이제 질량뿐 아니라 시각적 대상의 색깔, 음의 높이, 촉각대상의 굳기도 '경험의 대상들'로 도입되며 척도로 측정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대상들이 세가지 형식, 즉 '시간, 공간, 그리고 색(색깔있음)'(2.0251)을 가진다고 말한 바, 이것들은 모두 이중 세번째 형식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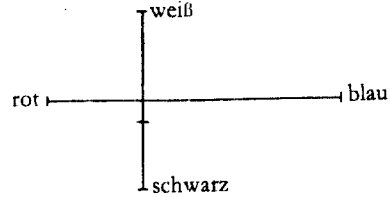
그래서 이제 세번째 형식을 측정하는 척도의 종류에 따라 대상의 종류도 달라진다. 먼저 과거의 질점은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에서와 똑같이 자, 경도측정용 정밀시계, 저울에 의해 측정되며 그 대상의 형식은 공간, 시간, 질량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상의 이름을 쓸 수는 없다. 그건 단지 경험, 즉 측정의 대상인 '체계'에서 추상된 것이므로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가변적 이름만 쓸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간은 세개의 직각좌표로, 시간과 질량은 각각 한 직선좌표로 제시된다. 그래서 대상의 가변적 이름은 예를 들어 '[x1, x2, x3][t1][m1]'이 될 것이다.

또 공간 속의 한 최소 얼룩, 즉 색점은 자, 경도측정용 시계, 색깔의 측정도구로 측정될 것이며, 그 형식은 공간, 시간,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평면 혹은 공간에 등장한 색 얼룩에서 두번째 형식, 즉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래서 주로 2차원적 공간에 색깔을 주어 그린 것이다. 완전한 그림 혹은 한 명제는 '우리 시야의 일정한 장소 P에서 일정한 시간 T에 색 R'(RLF, 35)을 그릴 것이다. 그런데 색점은

18) 「논고」에서 'Farbe'는 두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측정도구의 다양성에 따른 질량, (색깔의) 밝기, (소리의) 높이 등 대상의 세번째 형식을, 둘째, 실제 한 시각적 대상의 색깔. 한편 2.0232에 'farblos'란 낱말이 있으나, 그것은 '무색'이라기 보다는 '무색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세번째 형식, 즉 색깔을, 두가지 혹은 세가지 측정 차원으로 갖는다. 예를 들어 한 색은 '밝기의...정도'(RLF, 35)도 가지며 이것 역시 데카르트 좌표계처럼 색좌표로 표현되거나 수로 표현된다.

이런 밝기의 정도까지 고려하면 '색팔면체'(WWK, 42)를 써야 하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외하고 색깔의 단지 두가지 측정차원만 표현하자면, 그런 색좌표의 예는 옆의 그림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RLF, 33에서 '예를 들어 P is red를, 여기서 "R"은 아직 분석되지 않은 항인, 부호 "[6-9,3-8]R"에 의해 제시'했



는데, 이것은 색점이 아니라 이들의 복합자인 한 얼룩의 형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 이를 더 분석해서 한 색점의 가변적 이름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x1,x2,x3][t1][y1,y2]'.

한편 대상의 종류는 척도의 종류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즉 청각의 대상인 소리의 최소 단위, 즉 음점 역시 자, 경도측정용 정밀시계 혹은 메트로놈, 소리의 측정도구로 측정될 것이며, 그 형식은 공간, 시간, 음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중 시간 형식이 메트로놈으로 측정되면 그건 음악의 리듬을 형성한다. 음량 역시 두개의 측정차원을 갖는다. 그 '높이Höhe'(2.0131)는 피타고라스학파의 방법처럼 현의 길이나 장력으로, 혹은 음파의 파동 횟수를 세는 방법으로 측정될 것이다. RLF에서는 소리의 정도degree에 '세기strength'(RLF, 34)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음점의 가변적 이름은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 '[x1,x2,x3][t1][y1,y2]'. '측각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시간, 공간, 측각량의 세 형식을 가질 것인데 이중 측각량의 좌표는 '굳기Härte'(2.0131)에 의해 표현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전기, 자기적 대상의 전기량, 자기량도 마찬가지로 한 형식으로 독립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의 종류가 확대되면서 「논고」는 메타역학 혹은 메타물리학을 넘어서 메타자연과학이 된다.

대상을 이렇게 측정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은 과거의 존재론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달리 하게 된다. 그중 한가지가 위에서 보여지듯이 색과 소리를 속성이 아니라 대상의 형식으로 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상언어 '이것은 붉다'는 주어 술어 형식으로서 한 실체에 대해 붉음이란 속성을 규정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색들이 속성이 아니라는 것은 물리학의 분석이 보여주며, 또 물리학이 색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적관계들이 보여준다.' 그는 '이것을 또한 소리에도 적용하라'(이상 NB, 82)고 주장한다. 그럼 '이것은 붉다'라는 주어 술어 형식의 명제는 명제가 아니라 대상의 이름이 된다. 왜냐하면 '붉다'는 붉은 속성을 의미하는 술어가 아니라 대상의 한 형식을 표현하는 이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명제는 명제가 아니며, 또한 주어 술어 형식의 명제는 더군다나 아니다.

이처럼 '속성단어들이 분석 결과 사라진다'(그리핀, 78)는 것을 그리핀도 필자와 유사하게 주장한다. '나는 한 화학자가 일상적 용어(예를 들어 "water")를 요소들(1:8비율의 무게인 H와 O)로 분석하는, 그리고 한 물리학자가 이 요소들을(예를 들어 H원자) 더욱 더

기본적인 요소들(한 양성자와 한 전자)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 이제 자연과학에서의 이런 분석과정은 최소한 한가지 점에서 *Tractatus*의 분석중 하나를 상기시킨다: 거기서도 역시 속성들은 사라진다. 물은 차거나 따뜻하며 붉거나 초록이다. 원자적 입자들은, 거의 정의에 의해, 어느 쪽도 아니다'(그리핀, 79).

3. 자연과학의 존재론

'논고'의 대상이 이렇게 자연과학의 측정과 연관된다면, 우리는 '논고'의 존재론이 일단 자연과학의 존재론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상의 형식은 측정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종류에 의해 규정되며, 또 이들 형식 각각의 측정결과 우리는 '(유리수적이고 무리수적인) 수들'로 구성된 대상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논고'의 존재론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자.

(1) 대상과 배열

측정에 의해 추정된 바 세가지 형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대상들은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경험의 대상, 즉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에서 만나는 대상들은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복합된 것들이다. 먼저 단순대상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복합대상, 즉 원자사실들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원자사실 속에서 대상들은 사물의 고리들처럼 서로 엮여 있다'(2.03). 그래서 '원자사실은 대상들(사물들)Gegenständ- en (Sachen, Dingen)의 한 결합Verbindung이다'(2.01). 그런데 이러한 '원자사실의 구성분일 수 있다는 것이 사물 Ding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다'(2.011). 사물은 이런 본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측정되지도 않는다. 물론 이런 '원자사실에 한 사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존립하든 하지않든 '한 원자사실의 가능성은', 대상의 형식에서, 즉 이미 '사물 자체 속에 미리 결정되어 있다'(2.011). 그러나 또한 사물들은 원자사실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간을 떠나서 공간적 대상들을 생각하거나 시간을 떠나서 시간적 대상들을 생각할 수 없듯이', 원자사실 속에 등장하는 것, 즉 '다른 것과의 결합가능성을 떠나서는 <어떤> 대상도 생각할 수 <없다>'(2.0121).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물들의 결합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원자사실의 맥락Verbande 속에 있는 대상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이러한 맥락의 가능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2.0121).

한편 '원자사실은 대상들(사물들)의 한 결합'(2.01) 즉 '복합자'(2.0201)이다. 대상의 형식들은 시간, 공간, 색인 바 이때 색이란 색깔, 질량, 음량 등등 여러가지 측정차원들이니 척도의 종류에 따라 대상의 종류도 다양하며, 따라서 원자사실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복합자' 즉, '멜로디'(NB, 49)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또한 원자사실도, 사실들에서 추상한 결과이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에서 만나는 것은 이들 원자사실들이 또다시 복합된 복합대상들, 혹은 사실들이다. 이런 '경우인 것, 즉 한 사실은 원자사실들의 존립이다'(2).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초고의 복사본을

러셀에게 보낸 후 러셀의 질문들에 이렇게 대답한다. '원자사실들은 한 요소명제가 참일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실Tatsache은 요소명제들의 논리곱이 참일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다'(NB, 부록 129). 물론 우리는 단순대상과 원자사실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다. '...각 개의 사실은 무한히 많은 원자사실들로 이루어지고, 각 개의 원자사실은 무한히 많은 대상들로 복합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대상과 원자사실들은 있어야 할 것이다'(4.2211). 한 사실은 이런 원자사실들의 뭉치, 즉 논리곱이며 그것은 한 복합자, 즉 체계의 측정에서 경험된다.

그러나 대상들이 그저 함께 있다고 해서 복합자인 원자사실 혹은 사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즉 세계는 한갓 '사물의 총체'(1.1)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악적 테마 [Prototractatus에서는 '멜로디']는 음의 혼합물이 아니다'(3.141).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오그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렇게 말한다. '미술가의 색은 색들의 혼합물이 아니다. 그건 혼합물mixture이 아니라 구조structure이다'(「오그든에게의 편지」, 24). 그래서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1.1). 단순대상들인 사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

그 무언가가, '사실'의 구조, 즉 대상의 배열이다. '대상들의 배열Konfiguration이 원자사실을 형성한다'(2.0272). 그러나 아무렇게나 엮물려 있는 것이 아니다. '원자사실 속에서 대상들은 일정한 방식으로in bestimmter Art und Weise 서로 관계하고 있다'(2.031). 이런 관계를 위해 제3자가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면 이렇게 관계될 가능성, 그 결과 한 원자사실이 생겨날 '가능성이 사물 자체 속에 미리 결정되어 있기'(2.012) 때문이다. 즉 '대상들이 주어지면, 그와 함께' '가능한 원자사실들도 주어지게'(2.0124) 된다. 만일 대상들을 관계시키기 위해 어떤 판 것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것과 대상들을 관계시킬 또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무한회행이 생긴다. 그러나 대상들은 그 자신들이 직접, 사물의 고리들처럼 엮물려 직접 관계한다. '고리들을 연결하는 제3자는 없다'(「오그든에게의 편지」, 23). 대상들은 인간이나 절대정신, 혹은 신(神)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계하고 결합한다.

'대상들이 원자사실 속에서'(2.032) '서로 관계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2.031) 즉 '연관되어 있는 방식Die Art und Weise...zusammenhängen)이 원자사실의 구조이다'(2.032). 따라서 '대상들의 배열Konfiguration'(2.0272)이란 말은 원자사실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자사실의 구조'(2.0232)란 말로 표현된다. '배열'과 '구조'는 보는 국면에 따라 달리 표현됐을 뿐 원래 같은 것을 뜻한다. 또 '사실'은 원자사실들의 논리곱이므로 '사실의 구조는 원자사실들의 구조들로 이루어진다'(2.034). 배열이란 원래 희랍어 'taxis'로서 처음에는 '정렬한 군인들'을 뜻하는 군사용어였다. 각각의 사병들, 즉 개별자들이 달리 배열되면, 예를 들어 로마군의 방진과 같이 배열되면 그건 배후의 엄호물이 없는 평지 전투에서 최상의 전력을 창출한다. 즉 일상언어를 사용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질적 변화가 양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와는 달리 경험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즉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개별자로 분해한 원자론자에게는 '질'이 아니라 배열이 사물의 차이, 그래서 각각의 사물의 생성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용어중 하나이다. 헤르쯔의 「역학의 원리」는 단지 역학만 다루므로 이때 '배열Konfiguration'은 '한 체계의 점들의 서로간의 위치의 총체'의 뜻으로만 한정된다. 비트겐슈타인의 '배열Konfiguration'은 세계

에서 경험되는 모든 '사실' 즉 복합자의 구조이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경험의 대상인 복합대상들의 성질, 관계는, 사실은 모두 자연과학적 측정에서 '추상'되는 단순대상들의 형식이거나, 혹은 그것들의 배열, 즉 (원자)사실의 구조이다. 그래서 일상 언어의 성질, 관계 표현은 자연과학 명제에서 따로 나타나지 않으며 '기술된 현상들의 실제 논리적 형식'(RLF, 33)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첫째, 'This is red'에서 'Redness'는 성질이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건 단순대상의 한 형식이다. 그리고 둘째, 일상언어에 투사된 복합대상, 예를 들어 시계(時計)와 같은 것들의 속성들, 관계relation들은 모두 시계의 구성분들이 서로 관계맺은verhalten sich 것, 혹은 그것들의 배열, 즉 그 복합대상의 구조이다. 기존의 보편자들, 즉 일상언어에서 표현되는 성질과 관계들은 그래서 일부는 색깔과 소리처럼 대상의 형식으로, 또 나머지는 대상들의 배열이 된다. 대상의 세 형식들은 과거의 개별자이며 배열은 과거의 보편자이다.

예를 들어 일상언어 '등골다'의 뜻인 보편자 등금은 대상들의 배열이다. 일상적인 경험의 대상인 등근 것들은 사실 그것의 무한히 많은 구성분들, 즉 단순대상들이 데카르트 공간좌표의 '공간적인 점Raumpunkt'들의 '자리'를 '독립변항'(2.0131)들로서 채우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등근 방식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다. 그런 등근 방식Art und Weise은 이들 단순대상들의 형식들, 특히 여기서는 공간의 형식들이 표현할 수들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 $x_1^2 + x_2^2 + x_3^2 = 52$ '처럼 변항들로 표현된 한 수식으로 말해질 수 있다. 경험에서 만나는 등근 것의 모든 구성분들의 공간좌표들은 모두 이 수식을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만족시킨다. 이 수식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경험적인 것들의 본이 된다. 경험적인 것들은 이렇게 종이 위에 그려진 수학적인 수식처럼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며 단지 근사적으로 닮을 뿐이다. 한편 그것들의 관계, 즉 '외적속성'(2.01231)을 표현한 이 수식은 일상언어의 '등금' 뿐 아니라 그 정도까지, 즉 '반지름이 5인 등골기'의 뜻까지 포괄한다. 이 경우 프레게의 '함수', 즉 ' $()^2 + ()^2 + ()^2 = 52$ '은 그 독립변항인 수들이 (대상으로서) 괄호에 채워지지 않은 표현이다. 그건 '반지름이 5인 등골기'라는 보편자를 표현하며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배열' 혹은 '구조'의 표현이다. 프레게든 비트겐슈타인이든 이 반지름까지 변항으로 제시할 때, 예를 들어 ' $x_1^2 + x_2^2 + x_3^2 = y^2$ ' 혹은 ' $()^2 + ()^2 + ()^2 = ()^2$ '으로 제시하면 그건 바로 일상언어 '등골다'의 뜻인 보편자, '등금'만의 수학적 표현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배열은 또한 과거의 성질들이 갖는 속성들을 일부 보존하고 있다. 즉 '대상은 고정적인 것이며 지속하는 것Bestehende이다: 배열은 변화하는 것이며 무상한 것Unbeständige이다'(2.027!). 여기서 세계의 실체는 배열이 아니라 대상이다. '실체'란 말은 일상언어의 입장에서 볼 때 주어의 뜻, 즉 많은 속성들을 담지하고 있는 기체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자연과학의 언어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부서지지 않는 것', '불변의 것'을 뜻한다. "'이름은 다만 실재의 요소인 것만 기호화한다bezeichnet. 즉 부서지지 않는 것, 모든 변화에서도 동일한 것", 우리는 또한 그 구성요소들은 변화되지 않은 채 있으면서, 변화하는 (부서지는) 전체를 본다'(PI, §59).그는 이 이름의 뜻, '실재의 요소', '구성요소'인 단순대상을 실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대상들이 세계의 실체를 이룬다. 그것들은 복합적인 것일 수 없다'(2.021). 하지만 이런 대상은 일상언

어의 입장에서 본 실제, 즉 과거의 '기체'가 많은 속성들을 단지 우연적으로만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듯이, 단 한가지 배열만 타 대상과 함께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배열을 이룰 수 있으며 또 그 배열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세계의 실체는 한 형식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실질적 속성도 결정할 수 없다'(2.0231). 이런 실질적 속성, 즉 외적 속성은 대상들의 배열에 의해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일상언어로 표현하자면 한 복합대상은 깨질 수 있고 그래서 '모습'이나 '색', '맛'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단순대상은 함께 결합해 있지만 달리 결합할 수 있고 서로간의 '배열'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 만나는 현상들의 무궁무진한 운동과 변화, 그건 탈레스 이래 희랍철학 때부터 모든 철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설명해야 할 과제였는데, 그건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무상한 배열'로 설명된다.

(2) 우리가 다가서면 대상은 물러선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존재론이 과거의 존재론에 대해 가진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일상언어와 자연과학적 명제들 간의 차이만큼이나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견 종종 지적되어온 것인데, '이전의 형이상학들의 배경에서 볼 때 비트겐슈타인 존재론의 두드러진 혁신은 그가 세계를 사물들의 집적물이 아니라 사실들의 집적물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이 그를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데카르트 등 - 사실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고전 철학자들"과도 날카롭게 구분짓는다'(M. 블락, 27).

물론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존재론의 독특함은 바로 그의 철학의 출발점, 즉 일상적인 경험의 대상을 그 구성분들로 분해해가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그는 이런 사정을 PI에서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 「테아에테토스」를 자신의 번역 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테아에테토스」 201d~202b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과 다른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복합되는 <원초요소들stoicheia: Urelemente>에는 기술Erklärung¹⁹⁾이 없다. 왜냐면 그자체로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은 단지 이름으로만 기호화하며 다른 규정은, <이다>라는 규정이든 <아니다>라는 규정이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eine andere Bestimmung sei nicht möglich, weder die, es <sei>, noch die, es <sei nicht>)...

그 자체로 있는 것을...인간은 어떤 판 규정도 없이 명명(命名)해야benennen 한다. 그래서 어떤 원초요소를 기술방식으로erklärungsweise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단지 명명Benennung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이름Name만 가진다. 그러나 이런 원초요소들로 복합된 것이 짜맞춰진 구성물verflochtenes Gebilde인 것과 같이, 구성물의 명명 역시 이런 짜맞춤에서는 기술적 발언erklärende Rede으로 된다. 왜냐면 그것(기술적 발언)의 본질은 이름들의 짜맞춤이기 때문이다.

19) 비트겐슈타인은 희랍어 'logos'을 'Erklärung'으로 옮겼는데 이는 §49에서 보듯이 기술 beschreiben과 동의어로 쓰인다. 즉 '우리가 이 요소를 erklären(d.h. beschreiben)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benennen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49).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런 원초요소들이 또한 러셀의 "개별자들 individuals"이며 또한 나의 "대상들 Gegenstände"이다(Log.Phil.Abh.)'(이상 모두 PI, §46).

비트겐슈타인이 「테아에테토스」를 과연 어떻게 번역했으며 원래의 플라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번역문에서 보다시피 그는 여기서 그의 생각의 시발점을 플라톤의 입을 빌려 말했을 뿐이다. 즉 일상적 경험의 대상인 '짜맞춰진 구성물'은 복합대상인 바, 그것은 분해되면 '원초요소들'과 그것들의 '짜맞춤'이 된다. 원초요소들은 그 홀로는 '짜맞춤' 즉 '사물의 구조'인 '외적 속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건 이름으로만 기호화할 수 있을 뿐이며 명명의 대상이지 기술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해 경험적 대상인 구성물, 즉 복합대상은 일상언어에서 예를 들어 '이 책상'처럼 명명되지만 사실 그 명명의 본질은, 구성물인 책상의 분해와 상응해서 분석해보면, 무한히 많은 원자명제들의 논리곱이다. 이 원자명제들은 이름들의 배열, 즉 짜맞춤인 바 그건 한갓 이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 기술이다. 그래서 복합대상의 일상언어에서의 이름은 사실 자연과학명제에서는 이름들의 '짜맞춤' 즉 기술 Beschreibung이다. '상황들은 기술될 수는 있으나 명명될 수는 없다'(「논고」, 3.144). 이에 반해 '원초요소들' 즉 단순 '대상들은 명명될 수 있을 뿐이다'(3.221).

외부의 사물에 대해, 그리고 이를 표현한 언어에 대해 이렇게 원자론적으로 해명하려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과거의 원자론적 자연과학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었다. 18세기말 라보아지에는 화합물 혹은 혼합물과 원소를 구분해감으로써 근대화학의 기초를 수립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화학자들은 '구성물'에서 원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구성물을 단순물질처럼 보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 '화학의 비체계적 성격은 그것의 명명법 nomenclature에서도 드러났다...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환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름들 - ...'비소의 버터', '아연의 꽃들', '호전적인 에디오피아인들' 등 -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름들은 그것이 가리키는 물질들의 조성(組成)이나 상호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나타내주지 않았고 많은 경우에는 오해를 유발시키기도 했다(예를 들어 '비소의 버터'는 무시무시한 독약이었다)'.(「과학사 개론」, 273)

[결국 라보아지에는 원소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의해 여러 화학원소들을 밝혀 냈으며 동시에 만족할만한 명명법의 근거를 얻어냈다. 마침내 환상적이고 오해를 야기시키는 이름들이 체계적이고 물질의 성질을 표시해 주는 새로운 이름들로 대체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호전적인 에디오피아인들'은 '철의 검은 산화물'이 되었다. 라보아지에는 화학물질들에 관한 논의를 통해 화학적 과정들에 관한 생각도 명확하게 해주었다. '단순물질'들이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보존되며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물질들이었다. '화합물'들은 단순물질들이 결합해서...형성된 것들이며 원래의 성분들로 다시 분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윗 책, 277~8).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호전적인 에디오피아인들'은 아직 그 구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명명에 해당한다. 이런 명명은 당시의 화학자들이 난감해했던 것처럼 대상에

대해 '어떤 판 규정'도 주지 않으며 그 이름만으로는 우리는 해당 물질에 대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이것이 결국 '짜맞춰진 구성물'임이 발견됐을 때, 그때 라보아지에는 '호전적인 에디오피아인들'이라는 명명 대신 '철의 검은 산화물'이라는 '이름들의 짜맞춤', 즉 기술Beschreibung을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물이 모두 밝혀졌는가? 그렇지 않다. 위의 '철의 검은 산화물'에는 다시 두개의 원소, 즉 철과 산(酸)의 이름이 나타나며 다시 이 이름은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뜻하는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 철과 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항상 그것들이 다른 것과 함께 나타날 때 뿐이다. '우리는 다른 것과의 결합가능성을 떠나서는 <어떤> 대상도 생각할 수 없다'(2.0121). 예를 들어 철은 FO₂처럼 다른 것과 결합해서, 혹은 최소한 실험장치의 맥락 속에서만 나타난다. '사물은 그것이 모든 가능한 상황들 속에 나올 수 있는 한, 독립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의 형식은 원자사실과의 연관의 형식, 즉 의존의 형식이다'(2.0122). 우리가 철 자체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것이 다시 더 작은 원소,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의 '짜맞춰진 구성물'임이 밝혀질 때이다. 하레에 의하면 이런 철과 같은 '92가지 서로 다른 자연 원소, 92가지 서로 다른 물질이 근래에 환원되었다. 물질들 각각이 공간에서 92가지 서로 다른 배열을 이루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으로써, 즉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단 세가지 기본적인 물결 -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 이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체계라고 봄으로써, 물질의 92가지 다양성이 설명된 것이다'(하레, 188). 그럼 그 결과 우리는 이 짜맞춰진 구성물, 즉 철이 무엇인지 기술에 의해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단순대상의 '어떤 판 규정'도 주지 않는 이름들을,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측정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 또한 최근에는 복합자들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성자가 다시 쿼크들의 복합물로 밝혀지면, 우리는 양성자 대신 결국 '위up', '아래down', '기묘한strange', '매혹적인charmed'이라는 기묘한 이름Name을 가진 네개의 단순대상을 만난다. 이 중에서 '마지막 두 개의 별난 이름은 입자 자체의 성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들이 발견될 때 물리학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반영해 준다'(마치, 367). 즉 우리가 결국 만난 단순대상인 쿼크들은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기술Beschreibung'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대신 '기묘한', '매력적인' 등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대상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아마 '매력적인' 대신에 '고운fine' 혹은 반대로 '못난ugly'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건 그렇게 해도 그 쿼크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때 물리학자들은 세계의 쿼크들을 "위", "아래", "기묘한" 대신 "초컬릿", "바닐라", 그리고 "딸기"라고 기분내키는 대로'(M. 페이지스, 240) 명명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는 라보아지에 이전의 화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철의 검은 산화물을 '호전적인 에디오피아인들'이라고 부르는 대신 '시저의 정복' 혹은 '바이킹의 범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우리는 한 단순대상을 만나고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 이 이름만으로는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실험과 측정기술의 발달 결과 이 단순대상을 쪼개면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 그런데 그럼 또 그

요소들인 단순대상이 나타난다. 인간은 결국 단순대상이 된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아직은 쪼갤 수 없는 대상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것들은 단순대상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단순자Einfaches는 <이러하다>: 우리가 아는 가장 단순한 것Einfachste - 우리의 분석들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 - '(NB, 47). 이런 점에서는 라보아지에도 마찬가지다. "단순물질들"(오늘날의 "원소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라보아지에는 이와 비슷한 실용주의적 기준을 사용했다. "물질을 구성하는 단순하고 더 나눌 수 없는 원자들"에 대해 논의하거나 화합물질들의 분류를 원자가설에 바탕하는 대신, 라보아지에는 실험실에서 더 세분할 수 없는 어떤 물질도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물질들을 행동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실험과 관찰이 그렇게 증명할 때까지는 결코 그것들을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과학사 개론', 276).

그러니 비트겐슈타인이 단순대상의 예를 들지 못했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우리의 어려움은 다음이다: 우리가 항상 단순한 대상들에 대해 얘기하나 단 하나의 대상도 예를 들 줄 모른다'(NB, 68). *Notebooks*를 쓴 훨씬 뒤에도 그는 맥컴에게 '이것 저것이 단순한 것인지 복합적인 것인지를 결정지으려는 노력은 순전히 경험적인 문제로 논리학자로서의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맥컴, 86)고 말했다. 그런데 R. 하레에 의하면 경험적인 것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에게도 단순한 대상의 존재는 사실 한 형이상학적 입장의 표명이다.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분석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더 이상 분석하려는 모든 노력에 저항하는 개체의 집합이라고 하자. 이것이 원자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보다 강력한 다른 분석수단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분석을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해 "원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이 형이상학적 원자론자에게 그의 원자를 분석해 보여주는 것은 그의 입장에 대한 논박이 되지 못한다. 다만 그로 하여금 원자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게 할 뿐이다'(이상 하레, 138).

그래서 단순대상의 예를 드는 것은 자연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의 측정도구의 발전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결과 만일 어떤 것을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명명한다 하더라도 그건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술'할 수 없다. 즉 '말할sagen'(6.53) 수 없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7).

(3) 사물존재론과 사실존재론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테아에테토스」 번역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논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존재론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여기서 첫째, '원초요소들은' '〈이다〉라는 규정이든 〈아니다〉라는 규정이든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초요소들에 대해서는 계사가 사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의 숫자들로 구성된 명제 속의 이름에는 계사인 sein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둘째, 복합대상들은 어떤가? 일상언어, 특히 인도-유럽어족의 일상언어는 이것들에 대해 '주어-술어형식과 관계형식을

사용한다'(RLF, 32). '그러나 일상언어는 명제의 구조를 은폐한다.' 특히 '거기서 관계들은 숨어들처럼 보이며 숨어들은 이름들처럼 보인다, 등등'(NB, 96). 즉 일상언어는 복합대상들에 대해 주술형식이든 관계형식이든 계사sein을 사용한다. 그러나 복합대상, 즉 (원자)사실을 기술하는 자연과학의 명제는 단지 '이름들의 연쇄'(4.22), '단순기호들의 배열'(3.21), 즉 '짜맞춤'이며 따라서 복합대상의 경우에도 계사 sein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비트겐슈타인은 「탐구」 §50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에 Sein도 Nichtsein도 붙일beilegen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Sein' 그리고 'Nichtsein' 이라 부르는 모든 것이 요소들간의 결합들의 존립과 비존립Bestehen und Nichtbestehen 에 있다면 그럼 한 요소의 임(아님)Sein(Nichtsein)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첫째, '요소의 임과 아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둘째, '우리가 "임"과 "아님"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경험에서 만나는 복합대상들의 속성 혹은 관계들인데, 그건 자연과학의 언어에서는 '요소들의 결합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 이러 저러한 속성 혹은 성질 '임'이 아니라, 결합된 대상들인 (원자)사실의 '존립과 비존립'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 두 경우 다 자연과학의 언어에서는 '임Sein과 아님Nichtsein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래 주어와 술어를 연결해 주는 연결사, 즉 계사 sein의 역할은 「논고」의 언어에는 숫자들의 모임으로 환원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엔 수들의 모임인 이름들만 배열되어 있을 뿐 보편자를 뜻하는 술어도, 실체인 대상의 이름과 그 술어를 연결시키는 계사도 없다. 자연과학 명제에는 계사가 불필요하다. 그 명제 자체에도 없고 명제 내의 이름들의 관계들, 예를 들어 $F = G \cdot m_1 \cdot m_2 / r^2$ 같은 자연과학적 정리의 표현들에도 수식만 있지 계사는 없다. 자연과학의 명제는 그 속에 이름이 주어지고 어떤 판 것, 그건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게 술어이고 또한 계사도 있는 그런게 아니라, 이름들의 연쇄 전체가 주어이자 술어이다. 그러니 이름들의 뜻인 '대상'들, 이름들의 연쇄들의 의미인 '사실'들은 '<이다>라는 규정이든 <아니다>라는 규정이든 불가능'(PI, §46)하며 단지 '서로 관계합sich verhalten zueinander', '존립', '비존립'이라는 규정만 가능하다.

「논고」의 존재론은 이런 일반적인 문장형식의 차이 이상으로 과거의 존재론과 날카롭게 구분된다. 「논고」의 두번째 문장, 즉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1.1)는 원래 「논고」 내에서 세계가 한갓 단순대상들의 집적물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합, 즉 사실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논고」 1.1은 또한 과거의 존재론에 대한 비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상언어의 주어 술어 형식이 바로 실재의 형식인 것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존재론에서 주어의 뜻은 복합대상인 사물들Dinge이다. 이것들은 또한 속성들을 가지며 세계는 이들 속성들의 담지체인 사물들의 총체이다. 이러한 존재론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의 구성원들은 사물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배열한 사실들이다.

문제는 이들 두 존재론이 실재의 논리적 형식을 전혀 달리 본다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 실재의 논리적 형식은 언어에서처럼 주어 술어 형식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실체와 속성은 언어에서 주어와 술어를 연결시키는 계사 'sein'이 필요하듯이 연결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결합은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한다. 후자의 경우 실재의 논리적 형식은 자연과학의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이고 따라서 계사가 필요없는 것처럼 그 결합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사정은 현대 물리학자였던 Jeans경이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래 철학자들은, 물건이 많은 층의 층이에 싸인 것과 같이 실체를 많은 성질들로 덮어싸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덮개들은 그러므로 쉽게 실체에서 벗겨질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뒤 남아 있을 것, '그것이 있다면, 발견될 것에 대해 사색하는'(진스, 81)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이 생긴다. 즉 실체란 뭔가? '한 대상은 그것의 성질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가?'(진스, 92) 아니면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물음은 실체와 속성의 결합을 불안정하게 간주했기 때문에 생긴다. 제1차성질과 제2차성질의 구분부터 '과학의 객관적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인위적인 것으로 드러난다'(진스, 92). '과학은 다음의 사실을 발견한다: 실체 혹은 대상의 성질들이 부분적으로는 그것의 구성부분들이 내재적 본성에, 부분적으로는 이 구성부분들이 공간에서 배열된 방식에 의거함'(진스, 92). 비트겐슈타인에게서도 그러하다. 대상의 내적속성, 즉 형식들과 그런 대상들의 배열이 사실을 형성한다. 복합대상들의 성질은 이 둘 다에 의거한다. 특히 배열의 경우 진스경은 이렇게 계속한다. '그리고 대상의 물리적 성질들은 그것의 분자들의 배열방식the mode of arrangement에, 그것의 화학적 성질들은 그 분자들이 형성된 원자들의 배열방식에 의존함.'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의 성질들의 어떤 것도 "벗겨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그 구성분 단위들을 재배열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한 성질을 판 성질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음의 단단함을 물의 유동성으로, 다이아몬드의 찬란함을 흑연의 답답한 둔탁함으로, 혹은 그을음의 짙음으로.' 물론 배열이 바뀌듯이 성질도 바뀐다. 그러나 결국 어떤 성질이든 이 성질을 떼어낼 수는 없다. 또한 성질을 실체에 붙일 수도 없다. 즉 연결자가 불필요하다. '과학자들에게 모든 성질들은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건 몸체로부터 전혀 분리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1차적이다'(이상 진스, 92). 「논고」의 배열 역시 '무상'(2.0271)하지만 떼어낼 수도 붙일 수도 없다.

과거의 사물 존재론Ding Ontologie에서는 논리학 역시 주어-술어 형식이다. 그러한 논리학은 심지어 관계형식의 표현마저 술어화시켜 계사로 연결하려 했다. 그리고 주어와 술어의 뜻인 실체와 속성, 혹은 실체들의 관계의 연결자가 누구인가를 문제로 삼고 이를 순수 '통각Apperzeption'²⁰ 혹은 인간Da-Sein이나, 신 혹은 절대정신으로 간주하고서는 외부의 객관세계를 이들에게 종속시켰다. 이런 일은 실체와 속성을, 일상언어인 주어와 술어가 계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연결시킬 담당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

20) 칸트, 「순수이성비판」 B142, '인식들에 있어서 계사 - ist - 는 객관적 통일을 목표로 한다...계사는 근원적 통각에 대한 표상들의 관계를, 그리고 표상들의 <필연적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다.

실체와 속성을 떼어놓고 보면 또한 세계는 모순에 찬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검은 올보다 크다. 그러나 병보다는 작다. 즉 크지 않다. 그래서 검은 크고ist lang 크지 않다ist nicht lang. 이때 검은 Sein과 Nichtsein의 두 규정을 갖는다. 또 '한 흑성은 지금 이 장소에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또한 이 장소는 다른 장소anderen Ort일 수 있으며, 흑성이 움직임으로써 이 장소는 그것의 판-임Anderssein을 현존하게 한다.'²⁰ 그래서 한 장소는 Sein과 Anderssein의 두 규정을 갖는다. 세계는 이런 임Sein과 아님Nichtsein이 연속해서 교차하는 생성Werden의 과정이다.

세계에 있는 실체와 속성외에 그 연결자를 따로 찾는 주관적, 혹은 객관적 관념론과 실체에 모순된 속성들을 연결시키려는 변증법은 이런 사물 존재론에 근거를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계사 sein을 사용하거나 실체, 속성의 연결자를 찾으며, 모순된 속성을 사물에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물들, 즉 단순대상들의 연결의 원인은 바로 사물들에게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사물들은 판 것들과 '일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sich verhalten'(2.03)하며 그 원인은 사물의 고리들처럼 '사물 자체 속에 미리 결정되어'(2.012) 있다. '제3자는 없다'('오그든에게의 편지', 23). 우리는 자연과학의 명제들에 나타나지도 않은 연결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자연과학의 대상세계에는 버클리의 신, 칸트의 순수통각, 헤겔의 절대정신이 불필요하다. '대상들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와 함께' 배열, 구조가 있으며, '모든 가능한 원자사실들도 주어지게 된다'(2.0124). 우리는 실체와 속성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세계를 느슨하고 불안한 사물들Dinge의 총체로 볼 게 아니라, 실체와 배열, 실체와 구조를 한 묶음으로, 즉 신이나 인간과는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가분리의 사실들 Tatsache의 총체로 보아야 한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음악의 멜로디, 컴퓨터의 정보체계 등 역시 '사실'들로서의 물질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계사 'sein'에 결부된 생각은 서구철학의 시초에서부터 있어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이스인들과 똑같은 철학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의 언어가 ...똑같은 질문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 이다. 마치 '먹다'와 '마시다'처럼 기능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다'(to be)라는 동사가 계속 존재하는 한, '동일한', '참된', '그릇된', '가능한' 등의 동사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은 똑같이 아리송한 난관에 곱드러지게 되고 아무 설명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것같지 않은 그 무엇을 응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²¹

21) 헤겔, 『엔찌클로페디』, §81의 Mündlichen Zusatz 1.

22) Wittgenstein, *Culture and Value*, trans. P. Winch(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0), 15쪽 (엄정식, 129쪽).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학의 존재론에서는 'sein' 동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간편한'(RLF, 34) 일상언어의 원래 모습은 자연과학 언어이다. 그러니 일상언어의 존재론도 'sein'을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다. 사물 존재론은 계사 'sein'을 쓰는 인도유럽어족의 철학자들이 갖기 쉬운 질병이다. 그건 이제 사실 존재론Tatsache Ontologie, 단 말로 하자면 배열-존재론, 혹은 구조-존재론으로 바뀌어야 한다. 「논고」에 대한 이런 재해석을 따른다면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 않은 철학자들은 사물 존재론에 근거한 서구의 관념론철학, 혹은 변증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문명권 내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우리라고 예견했던 바, 서구의 자연과학 및 이에 근거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다른 문명권의 철학자들에게 오히려 익숙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I. L. Wittgenstein의 원저 및 번역서

- Wittgenstein's Notebooks 1914~1916*, ed. von Wright and G.E.M. Anscombe, Basil Blackwell, Oxford 1919. (NB)
- Prototractatus*, ed. B.F. McGuiness, T. Nyberg, G.H. von Wright, London, RKP, 1971.
-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C.K. Ogden trans. London: RKP, 1951; 「논리철학논고」, 박영식, 최세만 옮김, 정음사, 서울, 1985. (「논고」)
- Letters to C. K. Ogden*, with Comments 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Tractatus*, G.H. von Wright ed. Basil Blackwell, Oxford, RKP, 1973.
-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in *Essays on Wittgenstein*, I.M. Copi ed.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7. (RLF)
- Wittgenstein und der Wiener Kreis*, F. Waisemann, Schriften 3,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67. (WWK)
- Philosophische Bemerkungen*, Schriften 2, Suhrkamp Verlag, 1964.
- Philosophische Investigations*, trans. G.E.M. Anscombe,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1. (PI)

II.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국내 연구저작물

- 김여수, "비트겐슈타인의 이해를 위한 소묘",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분석철학 연구회 펴냄, 서울, 서광사, 1983.
- 남경희, "비트겐슈타인의 대상개념 - 사실존재론에로의 전환 - ", 윗책.
- 엄정식, "비트겐슈타인: 언어비판으로서의 철학과 현상학", 「훗설과 현대철학」, 한국현상학회 펴냄, 서광사, 1990.
- 이명현, "삶의 형식의 두가지 국면",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 이영철, "대상과 Tractatus", 「철학논구」 제5집, 1976.
- 이좌용, "Tractatus에 있어서의 '속성'의 존재성격에 관한 소고", 「철학논구」 제4집, 1975.

III. 기타

- Anscombe, G.E.M.,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ndon, Hutchinson, 1959. (앤스콤)
- Aristotle, "etaphysics", in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2nd ed. C.E. Kirk, J.E. Raven and M. Schonfield, Cambridge, 1983. . . . (아리스토텔레스)
- Barker, Peter, "Hertz and Wittgenstein" in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2(1980), No.3, Pergamon Press Ltd.
- Black, Max,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It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4. (블랙)
- Copi, I.M.,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in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I.M. Copi ed. New York, 1966.
- Descartes, Rene,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kritisch revidiert, übersetzt und hers. von Heinrich Springmeyer, Lüder Gäber,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73. (규칙)
- Epikurus, "Epicurus, epist. ad Herodotum", *Antike Atomphysik*, zusammengestellt von Alfred Stückelberger, München: Heimeran Verlag, 1970. (에피쿠로스)
- Fann, K.T., *Wittgenstein's Conception of Philosophy*,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1969,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황경식, 이운형 옮김, 삼일당, 1983. (판)
- Frege, G., "Über Sinn und Bedeutung", in *Funktion, Begriff, Bedeutung*, hers. G.

- Patzig, Vandenhoeck & Ruprecht in Göttingen, 1975.
- , “Funktion und Begriff”, *Ibid.*
- Goddard, Leonard, *The Metaphysics of Wittgenstein's Tractatus*, Melbourn and Brenda Judge, 1981. (고다드)
- Griffin, James,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 Oxford Univ. Press, 1974.
. (그리핀)
- Hacker, P.M.S., *Insight and Illus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6.
- Harre, R., *The Philosophies of Science*, Oxford Univ. Press, Oxford, 1978, 「과학철학」, 민찬홍, 이병욱 옮김, 서광사, 1985. (하레)
- Hegel, G.F.W., *Enzye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Werke 8, Suhrkamp.
- Hertz, Heinrich, *Die Prinzipien der Mechaniks*, Leipzig, 1894. . . (헤르쯔)
- Jankik, A., Toulmin, S.E., *Wittgenstein's Vienna*, New York, 1973.(비엔나)
- Jeans, James, *Physics and Philosophy*,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58.
. (진스)
- 윤구병,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대한 소고”, 「철학연구」 15집, 1980.
. (윤구병)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Hamburg, 1956.
- Keyt, David, “Wittgenstein's Notion of Object”, in Copi, op. cit. . (키트)
- ,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ractatus Examined”, *Philosophical Review*, 1965.
- Klemke, E.D. “The Ontology of Wittgenstein's Tractatus” in *Essays on Wittgenstein*, Univ. of Illinois Press, 1971.
- Malcolm, N., *L. Wittgenstein: A Memoir*, London, 1958, 「비트겐슈타인」, 서광선, 정대현 펴내고 옮김, 이대출판부, 서울, 1980. (맬컴)
- March, Robert H. *Physics for Poets*, and ed., MacGraw-Hill, Co., 1978, 「시인을 위한 물리학」, 신승애 옮김, 이대출판부, 1984. (마치)
- Pagels R. Heinz, *The Cosmic Code: Quantum Physics as the Language of Nature*, London, Michael Joseph, 1982, 「우주의 암호」, 이호연 옮김, 범양사, 1989.
- Pitcher, George,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 Russell, B., “On Denoting” in *Logic and Knowledge*, Allen & Unwin, London, 1956.
- Sellars, Wilfrid, “Naming and Saying”, in Copi, op. cit.

- Stenius, E., *Wittgenstein's Tractatus: A Critical Exposition of its Main Lines of Thought*, Oxford, 1960.
- Toulmin, S. and Goodfield, J., *The Architecture of Matter*, New York, Harper, 1962, in 「과학사 개론」, 김영식 펴내고 지음, 다산출판사, 1986. (「과학사 개론」)
- Urmson, J.O., *Philosophical Analysis*, Oxford, 1956, 이한구 옮김, 「분석철학」, 종로서적. (엄슨)
- Wilson, D. Andrew, "Hertz, Boltzman and Wittgenstein Reconsidered" in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20, No.2. 1989.